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지 균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Neo-DBAE이론에 기초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

-고등학교 교과서 회화 영역을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조 예 진

Neo-DBAE이론에 기초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
-고등학교 교과서 회화 영역을 중심으로-

김 지 균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조 예 진

인 준 서

조예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현대사회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보들은 시공간을 넘어 빠르게 교환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비판적 사고력과 시각적 안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미술교육에서는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예술을 지각하고 향수하며,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상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각적 문해력 신장에 효율적 접근법인 Neo-DBAE이론에 기반한 미술 감상교육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는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준말로, 미술의 독자성과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다. 사회, 문화, 사상적으로 시대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되면서 DBAE 내용 전반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현대의 시대적 특성에 맞게 보완되어 나온 것이 Neo-DBAE이다. Neo-DBAE는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미술표현의 네 영역을 중심으로 비평적 사고활동을 중시하고, 필요에 따라 네 영역의 중첩과 선택적 적용, 관련 학문 영역과의 통합을 추구하여 폭 넓은 미술경험을 유도한다. 이러한 Neo-DBAE의 특성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미술 감상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지도방안을 연구하여 오늘날 Neo-DBAE이론에 기초한 미술교육이 현 미술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술 감상은 미술 작품이나 시각 문화 환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느끼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또한 표현활동의 동기를 유발하며 작품을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는 Neo-DBAE이론에 기초한 미술교육 중에서도 한국회화와 서양회화의 감상교육을 통해 조형 양식과 표현 방법, 표현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다문화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회화 감상은 올바른 미

적가치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오늘날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한국회화와 서양회화 감상은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Neo-DBAE를 바탕으로 한 고등학교 감상 지도방안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Neo-DBAE이론에 기초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대상 및 제한점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Neo-DBAE의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고 Neo-DBAE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미술 감상교육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미술 감상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새롭게 개정된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한국회화와 서양회화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Neo-DBAE이론에 근거한 감상 지도방안 설계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Neo-DBAE이론에 기반을 둔 미술 감상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Neo-DBAE이론에 근거한 한국회화, 서양회화 감상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회화 영역 분석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2011년 8월, 미술과 교육과정이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효과적인 감상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은 Neo-DBAE이론에 기초한 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한국회화, 서양회화 감상 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양과 한국 실정에 맞는 지속적인 감상교육의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의 대상 및 제한점 ····· 4

Ⅱ. Neo-DBAE의 개념과 특성 ····· 6
1. DBAE의 배경 및 특성 ····· 6
2. DBAE의 한계점 ····· 9
3. Neo-DBAE의 등장배경 및 개념 ····· 10
4. Neo-DBAE의 특성 ····· 14
5. Neo-DBAE의 교육적 가치 ····· 20

Ⅲ. 우리나라 미술 감상교육의 현황 ····· 22
1. 미술 감상교육의 의의 ····· 22
2. 현행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 감상교육의 이해 ····· 24
(1)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감상교육 ····· 24
(2) 회화 관련 교과서 분석 ····· 26
3. 미술 감상교육의 문제점 ····· 51

Ⅳ. Neo-DBAE를 적용한 미술 감상교육 ····· 53
1. Neo-DBAE에 기반을 둔 미술 감상교육의 방향 ····· 53
2. 실제적 적용 방안 ····· 55

(1) Neo-DBAE이론에 근거한 한국회화 감상 ····· 55
(2) Neo-DBAE이론에 근거한 서양회화 감상 ····· 68

Ⅴ. 결론 ····· 8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DBAE이론의 변화 ····· 18
〈표 2〉 고등학교 교과서별 감상영역 페이지 수 ····· 27
〈표 3〉 고등학교 교과서별 감상영역 도판 비교 ····· 28
〈표 4〉 고등학교 미술 감상 과목의 내용 체계 ····· 29
〈표 5〉 '미술' _ (주) 교학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0
〈표 6〉 '미술' _ (주) 교학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1
〈표 7〉 '미술' - 미진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2
〈표 8〉 '미술' - 미진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3
〈표 9〉 '미술' - (주) 지학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3
〈표 10〉 '미술' - (주) 지학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4
〈표 11〉 '미술' - (주) 지학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4
〈표 12〉 '미술' - (주) 지학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5
〈표 13〉 '미술' - 천재교육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6
〈표 14〉 '미술' - 천재교육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7
〈표 15〉 '미술감상' - (주) 교학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8
〈표 16〉 '미술감상' - (주) 교학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39
〈표 17〉 '미술감상' - 미진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41
〈표 18〉 '미술감상' - 미진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42
〈표 19〉 '미술감상' - 경상북도 교육청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45
〈표 20〉 '미술감상' - 경상북도 교육청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 46
〈표 21〉 총 8종의 개정된 교과서 한국회화 도판 수 분석 결과 ····· 49
〈표 22〉 총 8종의 개정된 교과서 서양회화 도판 수 분석 결과 ····· 49
〈표 23〉 한국회화 감상 - 차시별 지도계획 ····· 59
〈표 24〉 한국회화 감상 - 1차시 본시학습지도안 ····· 61
〈표 25〉 한국회화 감상 - 1차시 감상 활동지 ····· 65

〈표 26〉 서양회화 감상 - 차시별 지도계획 ····· 72
〈표 27〉 서양회화 감상 - 1차시 본시학습지도안 ····· 74
〈표 28〉 서양회화 감상 - 1차시 감상 활동지 ····· 7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화, 다양화, 세계화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은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응용하고 재창조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 또한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미술교육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 그 바탕이 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1] 이런 미술교육의 목표 아래 지식과 정보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시각적 안목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미술교육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미술교육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미술작품들이 등장하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미술교육의 내용은 전통 순수미술에서 벗어나 응용미술, 대중미술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시각예술을 다루고 있다. 종래의 순수미술을 포함하

1) 교육과학기술부(A), 『미술과 교육과정(제 2011-361호)』, 2011, P.2.

되 우리 생활 전반에 깔려 있는 시각적 문화 요소 모두를 미술교육에서 다뤄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는 미술교육 운동이 Neo-DBAE이다.

Neo-DBAE는 DBAE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대적 경향성과 요구를 수용하면서 발전한 이론이다.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는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준말로, 미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미술교육이다.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미술표현의 네 영역에 기초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미술에 접근한다.[2] 이는 로웬펠드로 대변되는 창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술교육이 학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미술교육 개혁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이스너와 그리어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한 게티 미술교육센터가 연구, 개발의 중심을 이루어 교육자들로 하여금 표현활동에만 국한되던 미술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바꾸고 학문에 기초한 미술 영역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새로운 미술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요구하였다.[3]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DBAE는 다원성과 문화적 상대성을 받아들인 Neo-DBAE로 발전해 갔다. Neo-DBAE는 미술학문에 기초한 네 영역을 중심으로 비평적 사고 활동을 중시하며 시각적 문해력의 신장을 추구한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다원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다. Neo-DBAE의 비평적 사고활동을 통하여 시각적 정보를 이해할 수 있으며 통합적 지도 방법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감상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감상교육은 각 개인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미술을 애호하는 태도를 길러 주며 자신이 속해있는 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미술교육도 계속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는 표현과 제작이 그동안 소홀히 되었던 비평적인 면과 조화를 이루어 통합적인 예

2)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2003, P.293.
3) 최미경(A), 「DBAE의 변화에 대한 고찰」, 『사향미술교육논총』 제12, 2004, P31.

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통합적 미술교육의 바탕이 될 수 있는 Neo-DBAE 미술운동을 이론적 배경으로 시작하여 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 미술 감상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려한다. 회화 영역을 중심으로 한 감상교육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감상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고 실제적 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 · 학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Neo-DBAE 이론에 기초하여 미술세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유도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다른 교과간의 통합적인 감상교육을 제시하여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세계적 안목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Neo-DBAE의 모체학문인 DBAE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DBAE 이론이 Neo-DBAE로 발전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각각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본다. 또한 Neo-DBAE이론에서 미술 감상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알아본다.

둘째, 미술 감상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감상교육의 위치를 파악한다. 또한 현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감상교육의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위 결과를 바탕으로 회화영역의 감상지도 방안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Neo-DBAE의 이론에 기초하여 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현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미술 감상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의 대상 및 제한점

연구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첫째, 감상교육 지도 방안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2009년 12월 23일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안이 나왔고, 이후 2011년 8월에 미술과 개정 교육과정이 다시 한 번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에 맞는 교과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감상교육 지도 방안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교과인 '미술' 교과서 5종과 올해 출판된 선택교과의 '미술 감상' 교과서 3종의 교과서 분석을 기반으로 감상 교육 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감상교육 지도 방안의 제시는 회화영역 가운데에서도 한국회화와 서양회화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가치를 판단하고 감상하는데 중점을 둔다.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각각 독특한 표현 양식과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며, 이외에도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가치에 관하여 토론하도록 한다.[4] 이에 한국회화와 서양회화는 미술 작품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형성하는데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

4) 교육과학기술부(B),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미술(제 2007-79호)』, 2007, P.2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회화와 서양회화를 중심으로 한 감상교육 지도방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감상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Neo-DBAE의 개념과 특성

1. DBAE의 배경 및 특성

DBAE는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의 약어로서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 총체적 미술교육이라고 불리어진다. 이는 1960년대 로웬펠드(Lowenfeld), 리드(Read), 듀이(Dewey), 치젝(Cizek) 등에 의해 전개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나타난 미술교육 운동이다. DBAE는 통합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학, 미술사, 미술 비평, 미술 제작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DBAE 모델을 제시한 학자로는 아이스너(Eisner)가 있으며, 그리어(Greer)는 DBA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DBAE는 아이스너와 그리어의 미술 교육 사상을 주축으로 1982년부터 미국의 폴 게티 재단이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는 미술 교육 운동이다.[5)]

20세기 초, 중반에는 루소와 듀이의 역할로 아동중심 교육관이 확산되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아른하임의 심리학, 게슈탈트 심리학의 등장으로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 목적을 두는 미술교육이 성행하였다. 하지만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먼저 발사하면서 위기를 느낀 미국은 종래의 진보주의 교육과정을 비판하고 본질주의에 입각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이제는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한 창의성 계발에서 벗어나 미술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미술교육의 목적이 있었다.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아동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초 능력 학습 부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작품의 감상을 배척함으로써 감상이 인간 문화의 이해라는 본질을 간과하게 되었다. 이를 비판하며 학문을 중시하는 이해 중심 미술교육이 등장하였고 미술교육의 합리적, 과학적, 구조적 접근을 도모하며 미술교육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시작한다.

---

5) 박종미 외, 「DBAE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적 효과」, 교육과학연구, 2003, P4.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학문 중심 미술 교육 운동은 본질주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부르너 등에 의해 미국에서 일어났다. 부르너는 지식의 구조를 계열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적인 교수 방법에 의해 가르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부르너가 주장한 지식의 구조와 훈련은 미술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DBAE의 핵심적 특징들 중 성문화된 학습 계획, 계통적 조직화는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 개혁의 직접적 증표들이다.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 개혁에 매료되어 DBAE 주창자들은 미술교육 내용의 계통적, 조직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이 그들의 의도에 부합되는 미술 영역으로 간주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작품 활동과 함께 DBAE의 4영역이 탄생하게 되었다.[6)]

이러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중시한 브루너의 아이디어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바칸에 의해 미술교육에 도입되었다. 그는 “미술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는 미술사와 미술비평의 창의적 발달에서 나타날 것”[7)]이라는 주장을 하며 미술사와 미술비평을 미술실기와 연계하여 미술학의 기초를 세웠다. 그는 작품제작, 비평, 역사의 기본 내용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강조하여 미술 교과의 입지를 굳히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같은 1960년대의 움직임에 기반하여 아이스너(Eisner)는 DBAE의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커리큘럼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스탠포드 대학에서 시행된 게터링(Kettering) 프로젝트[8)]를 통하여 실험적 접근으로 발전하였다. 이어 1982년 그리어에 의하여 게티센터[9)](the 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가 설립되었고 처음으로 세상에 DBAE를 정식명칭으로 소개하면서 DBAE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되었다.

---

6) 김황기(A), 「DBAE : 어제와 오늘 (I)」, 『미술교육논총』 제15, 2002, P.27.
7) Barkan, 「Transitions in art education」, 1962, P.15.
8) 아이스너가 주관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게터링 교육과정 연구는 초등학교 미술교사가 아동들에게 의미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미술이해교육과 미술감상교육을 강화한 미술교육과정이다.
9) the Getty Education institute for the Arts : J. Paul Getty Trust에 의하여 지원받는 민간 예술교육센터로서 1980년대 초에 The 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다. The 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를 거쳐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교사와 학생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제공, 미술교육자간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게티미술교육센터는 1987년에 DBAE 지역협회의 발전과 수행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역연구소 보조금 프로그램인 RIG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10] DBAE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으로 확정, 변화되었다.

DBAE는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강조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에서 간과 하였던 학문의 개념과 탐구 방법을 강조하며 지식의 구조를 계열적으로 체계화 하여 미술에 대한 통합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높였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목표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던 DBAE는 작품활동 외에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의 네 분야를 포함하여 인접 학문까지도 포괄하는 미술교육을 목표로 한다. 각 네 영역들은 미술 감상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작품 창조를 위한 과정과 기술, 미술 작품이 창조된 시대 상황 등 미술의 본질에 대한 개념들을 탐구한다. 네 학문 영역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학은 미적지각활동으로써 사물에 대한 지각과 이해 및 감상활동을 의미한다. 미술 영역의 기본인 심미적인 경험을 훈련시켜 예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미적 경험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또한 미술 비평은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눈으로 시각세계를 볼 수 있도록 분석하고 종합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 미술사를 통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미술 및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표현은 창의적 표현활동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적 표현력을 신장 시킨다. 작품 및 실기제작의 학습을 통해 미술가의 사상과 시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미술언어로 전환되는지 경험하게 되어 인지적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네 영역을 통한 총체적 미술교육은 영역 간 상호작용으로 미술을 가장 잘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사고와 감정이 미술을 통해 지각하고, 창작하고, 활용하여 창조하면서 '시각적 문해력'이 길러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DBAE는 네 가지 학문의 균형 잡힌 교육내용, 문서화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강조, 시각적 문해력을 중시한 총제적 접근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계

10) 최미경(A), 전게서, P.32.

열성에 따라 조직되어진 교육과정을 통해 미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미술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교사들은 각 영역별로 통합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술을 지식의 체계로 보고 네 가지 영역의 통합을 주장한 DBAE는 미술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체계적인 지도와 적극적인 교사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2. DBAE의 한계점

DBAE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미술교육을 지나치게 지식 전달의 주지 교육으로 흐르게 하였고, 구조화가 가능한 학과로 다루었다. 미술 교과는 이론화, 계열화, 체계화에 무리가 있는 비구조화 학과 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DBAE의 학습 내용인 미술의 네 영역은 수업의 많은 비중을 지식전달이나 언어화하는 시간으로 보냈기 때문에 작품 시간을 감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대적으로 종래 미술교육과 대비되어 지식체계로서의 이해 교육을 부각시켰던 DBAE는 이해 교육이 종래의 형식주의 교육과 접목되면서 미술작품의 감상과 비평에 조형요소와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11]

둘째, DBAE는 미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 등장한 개념이므로 다른 나라의 교육 현실과는 유리된 철학과 내용을 지닌다고 비판받는다.

셋째, DBAE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가르칠 내용은 많고, 내용 구성이 어떻든 여전히 흥미롭지 못하다고 비판받는다.[12] DBAE의 네 가지 학문구조의 상이점이 많아 교육과정의 구성이 어렵고 많은 학습 분량을

11) 최미경(B), 「Neo-DBAE에 의한 미술교육과정 구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7.
12) 김성숙 외, 전게서, P.108.

가지고 있어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에는 수업시수가 너무 짧아 학습 분량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또 교사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을 이해하는 수업이 아닌 지식 전달식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들 또한 많은 학습 분량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자칫 암기식 수업이 될 수 있다.

초기 DBAE는 미술에 대한 통합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네 가지 학문의 균형 잡힌 교육내용, 문서화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강조, 시각적 문해력을 중시한 총체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미술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교사의 역할과 체계적인 지도를 중시하였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대중 미술, 여성 미술, 민속 미술을 소홀히 취급하였고 제한된 학교 미술 수업 시간은 결과적으로 서구 순수 미술의 강조로 나타났다. DBAE는 지나치게 연속적 지도, 예측 가능한 결과, 평가 가능한 학습을 강조함으로서 다른 교과와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은 사회, 문화, 사상적으로 시대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되면서 초기 DBAE가 제시한 미술교육 내용 전반에 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한계들이 발전되고 보완되어 Neo-DBAE로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3. Neo-DBAE의 등장배경 및 개념

초기 DBAE가 시작된 1980년대 초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시대가 바뀌던 때이다. 초기 DBAE에 대한 모더니즘적 사고에 비판을 하게 되어 DBAE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화하게 된다.

20세기 후반의 인식론과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경향성을 띠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관련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중심보다는 다수의 개체를, 동일시보다는 차이를 존중하며, 절대적 객관보다는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객관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소수 민족의 민속미술이나 원시미술, 순수 미술

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공예와 디자인, 백인 남성 위주의 미술에서 제 소리를 내지 못하던 여성 미술 등을 부각시키게 되었으며, 금기시되어 오던 동성애 등의 주제가 등장하게 되었다.[13]

또한 문화를 향유, 소비할 수 있는 대중들의 증가로 TV, 비디오,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와해되면서 미학적 대중주의가 팽배해지는 등 대중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었다.[14]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초기 DBAE가 제시한 기존의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 등 미술교육 내용 전반에 관한 의문이 제기 되었고 이 이론이 변화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술가, 미술사가, 미술 비평가, 미학자들은 모더니즘 시기의 모든 전제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전제들을 다루기 위한 내용과 연구 과정들을 도출해 내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의 특성에 기초한 DBAE는 SWRL[15]와 게티 센터 내의 미술교육 연구에서 활성화 되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RIG 프로그램[16]에서 일했던 미술 연구원들과 미술교육자들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토론을 가졌다. 1990년부터는 포스트모더니즘, 다문화 미술교육 등과 관련을 맺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RIG 프로그램은 학문 영역 중심의 새로운 미술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미술 교사, 미술 이론 전문가, 교육행정가, 미술관, 일반 교사, 작가들의 모임에 참가한 개인들의 상호작용은 계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교육기관과 RIG들은 정보를 교환하였고, RIG 지역연구소들은 세미나, 강좌, 심포지움과 워크숍, 기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화된 강좌의 분산화로 큰 실천을 가져왔다. 지역화된 프로그램, 학생 평가 도구, 지역 수집

---

13) 최미경(C), 「Neo-DBAE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고찰」, 『미술교육논총』, 2006, P.4

14) 김정선, Postmodernism과 미술교육,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P.206-234.

15) SWRL : Southwest Regional Laboratory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미국 남서부 지역의 초등학교 DBAE 프로그램 실험 연구소

16) RIG(Regional Institute Grant) 프로그램 : 게티 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역연구소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1987년 설립되어 DBAE의 전문적인 발달과 교과과정 실행모델이 국가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지원을 받은 지역연구소 초기 52개 중, 엄격한 평가를 거쳐 플로리다,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테네시, 달라스의 6개 협회를 최종 선발, 운영하였으며 이론 연구와 교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DBAE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교사들의 DBAE 이행을 지지함으로써 DBAE 이론의 실천적 확산을 지지하였다.

품들을 자료 센터와 전자 온라인 서비스, 원격지간 비디오 회의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네트워크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움으로써 격자구조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섯 개의 RIG 프로그램 지역협회는 학교지구와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수행, 교과과정에 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 주말 훈련 세미나를 가지거나 지역 강좌를 통하여 이론과 실천 구상을 발전시켰으며 도우미들에 의한 발표와 교실에서의 교육실례들을 포함한 비디오 테잎들을 제작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네 가지의 학습 영역중심의 미술, 음악, 연극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발전시키거나, 교사들의 교육적인 연계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예술주제들을 발전시켰다.[17)]

RIG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DBAE 이론을 실천의 예로 바꾼 것으로 이론이 실천에 영향을 주고, 실천 또한 이론의 재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DBAE 이론을 깊이 있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구성주의가 대두됨으로써 새로운 교육사조의 시대적 요구, 현장과의 실천적 상호작용의 요구 등에 의해 DBAE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의미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구성주의는 맥락성, 다양한 시각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을 절대적인 것, 인식자와 분리된 것, 외적 실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지식 이론과는 다르게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아는 것을 구성한다. 즉, 지식은 인식 주체와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주적으로 구성한 결과라는 것이다.[18)] 구성주의는 전통적 학습관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자신의 주관적 필요에 의하여 그 맥락에 맞는 의미와 지식을 구성한다. 구성주의에 기초한 DBAE는 네 영역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미술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는 미술 작품에 내재되거나 부여된 각각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구성주의의 영향은 미술교육의 흐름을 학습자들의 시각 및

17) 최미경(A), 전게서, P.33.
18) 류재만, 「구성주의 미술교육의 이론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2001.

예술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로 초점을 가져오게 되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미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도록 하였다. 초기 DBAE의 교사 주도적인 교과 과정에서 이제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편 김황기는 DBAE의 변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홀리스틱(holistic) 교육과정의 등장을 들었다.[19] 홀리스틱 교육과정은 존 듀이(John Dewey)의 진보적 관점과 칼 로저스(Karl Rogers)의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회상시킨다는 점에서 예전의 아동중심 교육과정과 유사하다.[20] 총체적 교육을 추구하는 홀리스틱 교육과정은 전체론적, 전인적, 비판적 자기 판단과 실천 용기의 강조, 생활 경험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통합교육을 주장한다. 학생 개개인의 문화 사회적 배경과 의미를 중시하고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밖에서 안으로의 발달'에 주목했던 DBAE개념과 일치했다. 이렇게 홀리스틱 교육은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함으로써 DBAE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집단에 속한 개체를 존중하며, 학습자 각각의 무한한 경우의 수에 기초한 의미 구성의 활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상호간의 관계 회복을 돕고 문제해결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교육사조의 변화는 DBAE 체제의 형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학문에 기초한 대범한 구조적 틀 속에서 개인의 맥락적 의미 구성과 이해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고자 하였으며 전체론적 이해를 위한 비평적 사고활동을 중시하게 되었다.[21] 이는 DBAE의 미술창작, 미술사, 미학, 미술비평인 네 영역을 통합하고 나아가 타 교과와의 통합, 다문화를 포함한 내용까지 통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초기 DBAE에 대한 모더니즘적 사고에 비판을 가져오게 되었고, DBAE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도입하며 발전하게 된다. 이에 변화된 DBAE의 개념을 표상할

---

19) 김황기,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DBAE : 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3, P.61.
20) 김황기(B), 「DBAE : 어제와 오늘 (Ⅱ)」, 『미술교육논총』 제15, 2002, P.191.
21) 최미경(C), 전게서, P.50.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Neo-DBA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DBAE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구성주의와 홀리스틱 교육을 바탕으로 개인의 의미구성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보완하게 된다.

4. Neo-DBAE의 특성

DBAE는 자체의 문제점 보완과 시대적 경향성의 수용을 통해 그 원칙들을 지키면서 Neo-DBAE로 새롭게 발전되어 왔다. 햄블렌(Hamblen)은 Neo-DBAE의 내용을 확장된 교과과정 내용, 종합적 또는 통합적 접근,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결과 및 평가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확장된 교육 내용이란 DBAE의 초기 내용에서 벗어나 역사적 의미의 수직적 속성과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라는 수평적 속성 모두를 포괄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또한 네 영역의 독립적 성격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개념으로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결과와 다양한 미술 외 학문 영역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22)]

Neo-DBAE의 대표적 특성으로는 첫째, 네 영역의 중첩과 선택적 적용이다. 미술 학문 영역 사이의 벽을 허물고 여러 학문 영역을 동시에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 네 영역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생성한다. DBAE의 구조는 네 가지의 학문영역을 동시에 가르치는 방법을 택하는 실천가들의 구상으로 인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미술영역 각각에 국한된 몰두가 미술 작품에 대한 주의를 떼어놓는다는 것을 인식한 연구자들은 네 영역 각각의 성격에 집중하여 독립적으로 사용되던 영역들이 중첩, 확대, 축소 등의 방식으로 고안되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제는 학문 영역 자체보다는 작품을 보다 완전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DBAE의 학문에 기초한 네 영역은 미술 작품을 만나고 그 가능한 의미들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방법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미술영역 자

22) 최미경(C), 전게서, P.56을 참조하여 작성함.

체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어 미술작품들을 소홀히 여기는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술교육 관련자들은 학문영역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작품을 완전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원천으로서의 의미에 더 비중을 두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미술의 네 영역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던 DBAE 강좌 프로그램과 교실수업은 1990년대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미학, 미술비평, 미술사, 미술창작으로부터 내용을 이끌어 내게 되었고 교육의 초점이 미술작품에 맞추어 지게 되었다.

초기 DBAE는 미술영역 각각이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동일한 비중을 가졌다. 이러한 독립적 적용은 영역별 특성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미술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저해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후 각 영역은 상호의존하며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영역들이 중첩되는 기본적인 방식들을 바탕으로 미술작품을 창조하고, 감상하고 이해한다. 예를 들어 미학과 미술비평의 중첩은 또 다른 문화에 의해 창조된 미술 대상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미술사와 미술창작의 중첩은 미술사를 연구하면서 얻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또는 미학, 미술 비평, 미술사가 서로 중첩되고 미술창작이 독립적으로 적용될 경우도 있다. 이처럼 DBAE의 학문에 기초한 네 영역들은 네 가지 영역의 중첩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을 통하여 활용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술사와 미술비평, 미술비평과 미학, 그리고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 창작을 중첩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통합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포괄적인 주제로 음악, 문학, 역사, 인류학 등의 다른 학문영역도 중첩, 통합이 가능하며 문학적 비평, 문학의 역사나 작품을 쓰는 과정의 결합도 포함한다.

이러한 네 영역의 선택적 적용이나 중첩의 융통성이 확대되고 다른 학문들과의 결합이 상호관련성을 맺으면서 학습자는 경험의 폭과 깊이가 더 발전하

게 된다.

둘째, 폭 넓은 미술경험의 유도가 있다. 네 영역은 모체학문을 기초로 폭과 깊이가 확장되어 다원적 미술교육의 내용을 담는다. 시각예술의 넓은 범위를 내용으로 하며 그 안에는 민속예술, 응용예술, 대중미술이 있다. 또한 다원성을 존중하며 공예, 디자인, 건축, 원시 미술 등의 기타장르 모두가 미술교육의 대상이 된다. 초기 DBAE가 순수미술을 중심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 졌다면 Neo-DBAE는 접근의 폭과 깊이를 결합한다. 전통적 시각예술과 관련성이 적은 형식들을 도입하여 형식적 접근을 확장하고 설치 미술의 개념을 포함한 자료, 영상물이나 컴퓨터, 인터넷 등 다양한 시각적 정보를 통해 접근의 폭이 넓어진다. 미술 형식과 매체의 결합은 다양한 미술 세계를 제공하고 기존의 미술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미술관은 미술에 심도 깊은 접근을 가져오는 매우 좋은 장소이다. 미술관을 통해 미술사나 미술비평, 미학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자료를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RIG 프로그램도 미술관을 가장 중요한 미술환경으로 여겼다.

다양한 세계문화의 미술작품을 접하는 것은 문화적 상이함에 따른 풍부함에 학생들을 접촉시킬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미술을 연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인공물일지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문화적 상이함에 기초한 많은 미술작품들과의 접촉은 미술교육내용의 범위 확장을 돕게 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문화의 미술과 친밀해질 수 있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23] 또한 미술관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작품의 제작 과정이나 기법에 관한 기술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미술관에서 접한 수집품과 미술품은 여성문화와 소수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23) 정희란, 「Neo-DBAE를 활용한 통합적인 전통미술교육에 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29.

을 넓혔으며 DBAE 내용의 실제적 확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RIG 프로그램에서의 미술관 경험은 교사 자신의 경험 세계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폭넓은 미술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Neo-DBAE는 이러한 요소들을 미술교육의 내용 범위로 포괄하여 수용하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대 미술교육을 접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네 영역의 중첩과 선택적 적용은 확대된 폭과 깊이의 경험을 가져왔고 Neo-DBAE의 내용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통합적 접근이 있다. Neo-DBAE에서는 미술교과로서의 독립적 성격은 유지하되 다른 교과목을 통합하여 사고의 확장을 유도한다. 관련 학문 영역들과의 통합은 연극, 무용, 음악 등과의 연결을 통한 소극적 접근으로부터 시각미술에 국한된 학문 외에 다른 교과의 개념을 포함하며 다른 교과와의 통합, 또는 종합적 전체적인 방법을 통한 확장된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영역 간 개념의 교류도 미술을 다른 교과목에 연결시킴으로써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영역이 RIG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Neo-DBAE의 내용 범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통합교육과정 구성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수방법이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미술의 각 영역이 타 학문과 연결되어 미술에 기초한 대주제가 학습 내용의 중심이 된다. 통합을 위한 대주제로 패턴과 모델, 커뮤니케이션, 변화, 범위와 구조, 관계와 상호작용, 다양성, 경제활동, 에너지와 자원, 균형과 안정은 Neo-DBAE의 통합 연구의 핵심이 되었다.

Neo-DBAE는 미술교육이 다른 교과들과 연계될 때, 확장된 주제, 영역, 테마, 화제, 아이디어들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그 자체도 보다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24] 초기 DBAE 이론이 미술의 네 영역을 중심으로 했다면 Neo-DBAE는 인류학, 고고학, 철학 등 일반교육이론과 접목하여 수업이 진행된다.

---

24) 최미경(C), 전게서, P.62.

주변 다른 학과들과 연계하여 총체적 접근 방법으로 전개된 미술교육의 이러한 움직임은 Neo-DBAE 이론에도 반영되었다. 미술교육이 다른 교과들과 연계되어 통합될 때 더욱 풍부하고 풍성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DBAE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DBAE이론의 변화[25)]

	DBAE	Neo-DBAE
초점	미술자체 (본질주의)	교육을 위한 미술 (도구주의)
통합교육	다른 교과와 연계	다른 교과와의 통합 또는 보조
미술내용	동서양, 민중 응용, 순수미술	여성, 소수 미술추가
학문의 경계	시각 미술	다른 교과의 개념도 포함
어린이 미술	꼭 창조적이지는 않음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짐
작품활동	중심 활동이 아님	중심 활동일 수 있음
평가	다른 교과와 같은 방법	종합적 전체적인 방법
사고	각 분야(네 영역) 예술가의 시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 학자	Clack, Day, Greer	Hamblen, Delacruz, Dunn, Dobbs. Day, Wilson

25) 김황기(B), 전게서, P.196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를 바탕으로 Neo-DBAE의 특성을 요약하면, Neo-DBAE는 초기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과 변화된 시대적 경향성을 수용하면서 확장되고 발전된다. 기존의 DBAE는 미술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이라는 학문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 변하면서 교육을 위한 미술이라는 도구주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존의 본질주의 관점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미술의 독자성이 낮아졌고 이제는 본질주의 관점과 도구주의 관점 모두가 미술교육을 위한 정당성을 가진다. 미술이 다른 교과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미술만을 위한 수업은 줄어들었다.

Neo-DBAE는 네 영역의 중첩과 선택적 적용으로 각 영역이 상호의존하며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다른 학문들과도 결합되고 그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었다. 또한 폭 넓은 미술경험의 유도로 순수 미술 형식에 TV와 비디오 등의 매체가 접목 되는 등 미술 형식과 매체의 결합이 다양해졌다. 특히 이러한 경험 확장에 가장 좋은 장소로 미술관이 있으며 창작을 위한 탐색적 사고활동을 돕는다. 또한 DBAE의 내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문화의 미술작품을 접하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 중심의 역사적 맥락에 대하여 이질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기층 주변 문화에 대한 관심 등이 나타나며, 모더니즘이 배제해 왔던 전통 및 문학, 도덕적 요소를 부활시키고 예술과 환경, 예술과 사회, 예술과 현실을 잇는 작업을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다.[26] 이제는 서구문화에서 벗어나 동양, 여성미술, 소수민족, 비서구문화를 교육내용으로 다루게 되었고 민속예술, 응용예술, 대중미술 등 시각문화와 다원주의를 미술의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Neo-DBAE는 미술이 다른 교과들과 연계될 때, 더욱 풍부해 진다고 하며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제는 미술의 네 영역에 고고학, 철학, 과학 등 일반 교육이론들까지 연계되어 총체적 방법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미술이 다른 교과에 너무 치중하여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26) 전성수, 「포스트모던 미술교육 논의에 대한 비평」, 『사향미술교육논총』, 2003, P.104.

5. Neo-DBAE의 교육적 가치

Neo-DBAE의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네 영역의 중첩과 선택적 적용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결합을 하기도 한다. 미술 영역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역사, 인류학 등의 다른 학문 영역이 포함됨으로써 발전된 학습 형태를 갖추게 된다.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장해 나가는 만큼 교사의 적극성과 체계성을 요구한다. 방임적인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미술에 대한 보다 깊은 정보와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폭 넓은 미술 경험의 유도는 미학, 미술 비평, 미술사, 미술창작의 영역뿐만 아니라 민속예술, 대중미술, 동양, 소수민족 등 시각예술의 넓은 범위와 다원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네 영역을 통한 비평적 사고 활동은 미술교육의 중심활동으로 자리 잡아 시각적 정보를 이해, 해석, 창조하는 시각적 문해력 신장을 키울 수 있다. 비평적 사고 활동은 서로간의 감정, 사고의 교류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미의식을 갖게 한다. 학생들은 시각적 정보를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읽어내고 활용, 선택하여 재창조 할 수 있는 미적안목 갖게 된다.

셋째, 미술교과로서의 독립적 성격은 유지하되 주변 다른 학과들과 연계한 통합적 접근 방법이 있다. 통합적 접근은 미술 교과 내의 영역 간 통합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학문 영역들과의 연계 및 통합을 말하며 미술교육이 더욱 풍부해지도록 한다. 미술교과 내에서의 이해와 표현, 감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미술의 이해와 표현, 감상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을 때 미술교육의 목적에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미술을 중심으로 타 학문들을 통합함으로써 다원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한 문화의 맥락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Neo-DBAE 이론은 교사들과 미술전문가, 교수들의 적극적인 실천 이행의 바탕 아래 보다 진보된 미술교육으로 나아 갈 수 있다. 이론과 실

제에 약한 우리 미술교육에 폭 넓은 미술세계를 제공하므로 그 교육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미술 감상교육의 현황

1. 미술 감상교육의 의의

미술 감상은 미적 대상의 형식과 내용 전체를 음미하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감상이란 뜻의 'appreciation'은 라틴어의 'appreciatus'에서 온 용어로 'appraise', 즉 ① 품질, 크기, 무게 등을 '평가하다'와 ② '감정하다' '사정하다' '값을 매기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미적 요소를 향수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술작품의 의미와 질,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작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감상은 예술을 감수(感受)하고 음미하며, 평가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27] 단순한 지적 · 분석적 이해나 개인적인 좋고 싫음이 반응되는 정서적 태도와는 구별된다. 또한 미적 관조와는 달리 작품을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평가활동이 포함되나, 그 평가가 비평의 경우처럼 언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28] 즉 감상은 예술작품을 보고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미적 체험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감상을 통해 둔해진 감각에 눈을 뜨게 하고 의식의 새로운 차원을 계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감상활동은 정신적 재창조 활동이며,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형성한다. 또한 감성을 풍부하게 하여 표현과 감상활동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다. 미술 감상을 통해 표현의 동기를 얻고 창작과 향수의 질을 심화시켜 준다. 이는 오늘날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정신, 그들의 미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활상을 이해하고 자국의 미술문화를 재확인하여 한층 발전된 미의식을 가져오게 한다. 때문에 다문화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 감상교육은 꼭 필요하며 감상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

27)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아트, 2003, P.25.
28)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14.

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표현 위주의 학습에 대한 문제제기로 감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미술 교육이 표현 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이해와 감상 활동도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제작 활동과 미학, 미술사, 미술 비평을 미술 교육에 더욱 균형 있게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것이다.[29] 이에 따라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미술 교과과정에서 표현뿐만 아니라 감상과 미적 체험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30] 이후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도 감상의 영역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올해 8월에 고시된 미술과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감상 영역을 살펴보면 '미술 문화' 과목 안에서 미술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술 문화' 과목의 목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비평적 사고력과 미적 감수성을 길러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생활 속에서 미술의 기능과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나. 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에 근거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한다.

다. 확장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31]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미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미술감상 교육을 통해 지도될 수 있다. 인식적인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적 안목을 성장시키고, 작품의 문화적, 역사적 관련성을 이해하여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만든다.

---

29) 노부자,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1999, P.218.

30) 정진희, 「미술관 연계 방과후 미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 : 경기 농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6.

31) 교육과학기술부(A), 전게서, P.24.

2. 현행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 감상교육의 이해

(1)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감상교육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지식을 재창조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창의성 인재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 상황을 주도하는 글로벌 창의인을 인간상으로 설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12월 23일 고시되었다. 이것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화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년(군), 교과군,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였으며 학교에 교과(군)별 수업시수 증감을 허용하였다.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설하여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바탕한 것이다. 이후 2011년 8월 9일 '2011년도 개정 선택 교육과정'이 다시 한 번 고시 되었다. 하지만 이에 맞는 교과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대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심화 선택 과목을 강조하는 것으로 선택 과목의 개설 취지를 일원화하였다. 즉, 선택 과목의 성격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교양을 증진하고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추구하는 과목"으로 규정하였다.[32]

32) 교육과학기술부(B), 전게서, P.84.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은 필수교과로 미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 영역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감상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는 '미술작품'과 '미술문화'이다. 반면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술과 선택 과목은 미술과 삶, 미술 창작, 미술 감상으로 각 과목들은 미술 교과와 연계성을 가지며, 학생들이 각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 미술의 영역을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다.[33] 이에 미술 감상은 '관찰과 반응', '분석과 해석', '판단과 활용'의 세 개의 대 영역을 가지고 있다. '관찰과 반응'의 중 영역으로는 '직관적 감상', '현장 체험'이 있으며 '분석과 해석'의 중 영역으로는 '조형적 특성 이해', '미술가 탐구', '맥락적 이해'가 있다. 또 '판단과 활용'의 중 영역으로는 '미술 비평'과 '감상의 활용'이 있다.

다음으로 감상영역에서의 학년 군별 목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 4학년은 미술 작품과 미술 문화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초등학교 5, 6학년은 미술 작품을 분석하고 미술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중학교에서는 미술 작품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미술 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미술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감상 영역의 고등학교 학년 군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에서는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가치에 대하여 토론하고 판단하며 감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 제재로는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작품을 찾아보고 각 작품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 양식과 미적인 특징 조사하기', '하나의 미술 작품에 담긴 다양한 가치에 대하여 토론하기', '미술 작품에 대한 여러 비평문을 찾아보고 느낌을 이야기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간단한 비평문 작성하기' 등이 있다.[34] 또한 주변의 미술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참여하며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한다.

33) 교육과학기술부(B), 전게서, P.87.
34) 교육과학기술부(B), 전게서, P.29.

위에서 본 것처럼 현재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영역은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작품을 통해 표현 양식과 특징을 배우고 폭넓은 안목을 형성하여 미술 문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 교육과정은 학문의 변화와 사회 문화적 변화의 흐름에 맞게 개정되고 있다.

(2) 회화 관련 교과서 분석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고등학교 1학년은 '미술'을 필수교과로 사용하며,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교과로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으로 구성된 교과서를 사용한다. 여기서 선택교과는 7차 교육과정에서 각각 나눠져 있던 일반 선택 교과와 심화 선택 교과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

미술 교과의 선택 과목은 미술 교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선택 과목들 간에도 구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35] 선택 과목은 미술 교과의 주요 내용 영역인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을 각각 심화시켜 구성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감상 영역의 회화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한 바람직한 수업 고안을 위해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미술'의 감상내용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고등학교 2, 3학년의 감상에 해당되는 '미술 감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술' 교과서는 (주) 교학사, 미진사, (주) 지학사, (주) 지학사, 천재교육의 총 5종이다. 또한 '미술 감상' 교과서는 (주) 교학사, 미진사, 경상북도교육청의 총 3종이며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감상부분의 페이지 수를 살펴보고 감상영역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각 교과서에 제시된 회화 작품 도판을 분석하여 회화 감상의 실제에 앞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2007년 개정 교육과

35) 교육과학기술부(B), 전게서, P.87.

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 군별 내용과도 연관되는 것으로써 미술 작품의 시대별, 양식별, 지역별 특징을 이해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가. 고등학교 교과서 감상 영역 페이지 수와 도판 수 비교 - 회화분석

감상영역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7차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감상영역의 페이지 수와 도판 수를 분석하였다.

<표 2> 고등학교 교과서별 감상영역 페이지 수

	출판사	미적 체험 영역	표현영역	감상영역
'미술' 교과서	(주) 교학사	14	36	22
	미진사	12	54	14
	(주) 지학사	12	50	12
	(주) 지학사	12	40	16
	천재교육	56	48	74
'미술 감상' 교과서	(주) 교학사			124
	미진사			103
	경상북도 교육청			204

※단위 Page

'미술'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페이지 80~84Page 중 감상 영역이 15~22Page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한 단원에서 미적체험과 표현, 감상이 나눠져 있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천재교육은 한 단원에서 미적체험, 표현, 감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미적체험과 감상, 표현과 감

상 등 감상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

‘미술 감상’ 교과서의 경우는 감상영역만 따로 묶어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Page가 감상영역이다. ‘미술’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감상을 배울 수 있고 활동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미술 감상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술 감상’은 학생들로 하여금 풍부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해주어 감상영역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다.

<표 3> 고등학교 교과서별 감상영역 도판 비교

	출판사	학년	전체 도판 수	한국화 도판 수	서양화 도판 수	한국화 도판비율	서양화 도판비율
‘미술’ 교과서	(주) 교학사	통합	518	20	27	3.8%	5.2%
	미진사	통합	370	6	12	1.6%	3.2%
	(주) 지학사	통합	418	10	22	2.3%	5.2%
	(주) 지학사	통합	390	21	22	5.3%	5.6%
	천재교육	통합	445	18	18	4%	4%
‘미술 감상‘ 교과서	(주) 교학사	통합	782	32	71	4%	9%
	미진사	통합	810	25	69	3%	8.5%
	경상북도 교육청	통합	946	42	50	4.4%	5.3%

위의 결과 중 ‘미술 감상’ 교과서의 (주) 교학사와 경상북도교육청 교과서는 단원을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미술 감상’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분석과 해석 부분을 선택하여 통계를 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제시된 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고등학교 미술 감상 과목의 내용 체계[36)]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 관찰과 반응	(가)직관적 감상	①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적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② 감상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기
	(나) 현장 체험	① 생활 주변, 미술관, 박물관, 작가 스튜디오 등에서 미술을 감상하기 ② 학교 및 지역 미술 행사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
(2) 분석과 해석	(가) 조형적 특성 이해	①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기법 등을 분석하기 ② 작가 양식, 시대 양식, 민족 양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③ 감상 대상의 형식적, 양식적 특성에 기초하여 정보를 해석하기
	(나) 미술가 탐구	① 미술가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② 미술가의 개인적 경험, 성장 배경, 표현 특성의 관계 이해하기 ③ 미술가가 지역, 사회,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해석하기
	(다) 맥락적 이해	① 시대별, 지역별 미술의 특성 비교 분석하기 ② 감상 대상을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③ 시간, 장소, 환경에 따른 감상 대상의 의미 변화 이해하기
(3) 판단과 활용	(가) 미술 비평	① 미술이나 미술가에 대한 비평의 관점에 대하여 토론하기 ② 비평 관점을 활용하여 비평문 작성하기
	(나) 감상의 활용	① 주제가 있는 전시 기획하기 ② 감상 대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보여 주는 작품 감상집, 포트폴리오 등을 제작하기

위의 표는 고등학교 미술 감상 과목의 내용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대영역의 분석과 해석은 각각 작품 자체에 대한 탐구와 미술가에 대한 탐구, 사회적 · 역사적 · 문화적 환경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며 이것은 회화영역 감상교육의 기초가 되므로 분석과 해석 부분을 선택하여 통계를 내었다. 또한 '미술감상' 경상북도교육청 교과서는 조형과 양식, 미술가 탐구 부분이 미술 감상 활동을 하는데 중점이 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만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미술감상' 교학사 교과서와 경상북도교육청 교과서의 도판비율은 이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 3>의 교과서별 감상영역 도판 비교결과, 교과서에 실린 전체 도판 수 중 감상영역의 도판 수는 출판사별로 다르지만 대략 5.3% 비율로 낮은 부분

36) 교육과학기술부(B), 전게서, P.127.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도판 수 중 한국화의 도판 수를 보면 5.3%로 '미술'의 지학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술 감상'의 경상북도 교육청, '미술 감상'의 교학사와 '미술'의 천재교육이 같은 4%의 비율로 낮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도판 수 중 서양화의 도판 수를 보면 '미술 감상'의 교학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미술 감상'의 지학사, '미술'의 지학사 순으로 나타났다.

감상 영역의 도판 수는 전체 도판 수의 5.3%를 차지하며 낮은 비율을 보였고, 감상 영역 안에서 한국화와 서양화의 도판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화 보다 서양화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화 보다 서양화 도판이 더 많이 실려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미술'교과서 보다 '미술 감상' 교과서가 더 풍부한 시각적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감상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나. 고등학교 교과서 감상 영역의 한국회화와 서양회화 도판 분석

다음은 각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감상영역의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들을 정리한 표이다. 다음 표의 분류에는 작가 작품뿐만 아니라 학생 작품까지도 회화와 연계되는 내용이라면 포함시켰다.

① 미술 - (주) 교학사

(주) 교학사에서 다루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도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미술' _ (주) 교학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청룡도 (강서대묘 현실/석벽화/약 7세기 경/고구려) P.68 ② 천마도 (자작나무에 채색/신라) P.69 ③ 양류관음도 (부분/비단채색/1300년 경) 혜허 P.70 ④ 묭유도원도 (비단에 수묵 담채/1447년 작) 안견 P.71 ⑤ 고사관수도 (수묵/조선) 강희안 P.71

		⑥ 인왕제색도 (수묵 담채/1751년 작) 정선 P.72 ⑦ 선유도 (지본 담채/18~19세기 초) 신윤복 P.72 ⑧ 이재 초상 (채색/18세기) 작자 미상 P.72 ⑨ 계산포무도 (수묵/조선) 전기 P.73 ⑩ 호취도 (수묵 담채/조선) 장승업 P.73 ⑪ 자화상 (유채/1951년 작) 고희동 P.74 ⑫ 여인 (유채/1930년 작) 구본웅 P.74 ⑬ 사과밭 (유채/1937년 작) 오지호 P.74 ⑭ 론도 (유채/1938년 작) 김환기 P.74 ⑮ 군상 (유채/1948년 작) 이쾌대 P.75 ⑯ 골목 안 (유채/1950년 작) 박수근 P.75 ⑰ 달과 까마귀 (유채/1954년 작) 이중섭 P.75 ⑱ 노점 (후채/1956년 작) 박내현 P.75 ⑲ 산가청류 (수묵 담채/1960년 작) 이상범 P.75 ⑳ 산 (유채/1968년 작) 유영국 P.75

<표 6> '미술' _ (주) 교학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별이 빛나는 밤 (캔버스에 유채) 반 고흐 P.67 ② 투우사의 프레스코(크노소스 궁전벽화/B.C.17~15세기) P.68 ③ 라스코 동굴 벽화 (라스코동굴/B.C.16000~14000년경) P.68 ④ 리비아 저택의 벽화 (프레스코/41~54년/로마/폼페이) P.69 ⑤ 카타콤 벽화 (프레스코/4세기/초기 기독교/이탈리아) P.69 ⑥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모자이크/547년경) P.69 ⑦ 비너스의 탄생 (템페라/1485년 작) 보티첼리 P.70 ⑧ 돌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유채/1632년 작) 렘브란트 P.71 ⑨ 시녀들 (유채/1656년 작) 벨라스케스 P.71 ⑩ 미델하르니스의 길 (유채/1689년 작) 호베마 P.71 ⑪ 시테라 섬으로의 출범 (유채/1717년 작) 와토 P.71 ⑫ 목욕하는 여인 (유채/1808년 작) 앵그르 P.72 ⑬ 거인 (유채/1810~1812년 작) 고야 P.72 ⑭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유채/1830년 작) 들라크루아 P.72 ⑮ 안녕하십니까? 쿠르베 씨 (유채/1854년 작) 쿠르베 P.72 ⑯ 건초 마차 (유채/1821년 작) 컨스터블 P.72

		⑰ 해 뜨는 인상 (유채/1872년 작) 모네 P.73 ⑱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유채/1884~1886) 쇠라 P.73 ⑲ 밤의 카페 (유채/1888년 작) 반 고흐 P.73 ⑳ 자화상 (유채/1893~1894) 고갱 P.73 ㉑ 절규 (유채/1893년 작) 뭉크 P.73 ㉒ 붉은 방 (유채/1908년 작) 마티스 P.74 ㉓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유채/1942~1943년작) 몬드리안 P.74 ㉔ 인질의 머리1 (석고, 구아슈/1943년 작) 포트리에 P.74 ㉕ 세 개의 깃발 (캔버스에 밀랍/1958년 작) 존스 P.75 ㉖ 차안 (마그나 물감/1963년 작) 리히텐슈타인 P.75
	기타 작 (외국작가 작, 학생작)	① 별이 빛나는 밤 (종이에 아크릴) 학생작(유재현) P.67

② 미술 - 미진사

미진사에서 다루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도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미술' - 미진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홍계희 평생도 중 회혼식 (부분/비단에 담채/18세기) 작가 미상 P.71 ② 자화상 (부분/종이에 옅은 채색/1710년경) 윤두서 P.74 ③ 젊은 날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소년 행락 (종이에 수묵/18세기) 정선 P.75 ④ 기명절지 (종이에 수묵 담채/20세기 초) 조석진 P.77 ⑤ 책가도 (8폭 병풍 중 부분/19세기) 작가 미상 P.77 ⑥ 단옷날 그네뛰기 (종이에 채색/19세기 말) 김준근 P.82

<표 8> ‘미술’ - 미진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농부의 결혼식 (캔버스에 유채/1568년) 브뢰겔 P.71 ②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목판에 유채/1500년) 뒤러 P.74 ③ 조지 다이어 연구 (캔버스에 유채/1969년) 베이컨 P.75 ④ 테라코타 화병 속의 꽃 (캔버스에 유채/1736년) 호이쉼 P.76 ⑤ 정물 (캔버스에 유채/1737년) 샤르댕 P.76 ⑥ 과일이 있는 정물 (캔버스에 유채/1879~1882년) 세잔 P.76 ⑦ 기타 (신문, 종이, 목탄, 잉크/1913년) 피카소 P.76 ⑧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알레고리 (패널에 유채/1640년경) 스텐웨이크 P.77 ⑨ 안개 낀 바다의 산보자 (캔버스에 유채/1818년) 프리드리히 P.78 ⑩ 레스타크의 집들 (캔버스에 유채/1908년) 브라크 P.79 ⑪ 햇빛 소의 건초더미 (캔버스에 유채/1891년) 모네 P.79 ⑫ 텀벙 (캔버스에 아크릴/1967년) 호크니 P.79

③ 미술 - (주) 지학사

(주) 지학사에서 다루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도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9> ‘미술’ - (주) 지학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천마도 (자작나무 껍질/삼국 시대 신라) P.67 ② 양수리 (유채/2004년 작) 민정기 P.68 ③ 금강전도 (수묵담채/조선 시대) 정선 P.71 ④ 반구대 암각화 (신석기 시대-청동기 시대) P.72 ⑤ 현무도 (화강석에 채색/고구려) P.72 ⑥ 수월관음도 (비단에 채색/고려) P.73 ⑦ 수렵도 (무용총 현실 서벽/고구려) P.75 ⑧ 단오풍정 (담채/조선 시대) 신윤복 P.75 ⑨ 대장간 (수묵 담채/조선 시대) 김득신 P.75 ⑩ 창신동 집 (유채/1950년대) 박수근 P.75

<표 10> '미술' - (주) 지학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수련 (유채/1914~1926년 작) 모네 P.70 ② 모나리자 (유채/1503~1505년경) 레오나르도 다빈치 P.70 ③ 마릴린 먼로 (실크 스크린/1967년 작) 워홀 P.70 ④ 소와 말과 사슴 (라스코 동굴 벽화/구석기 시대) P.72 ⑤ 옥좌에 앉은 성모자 (목판에 템페라/1208년경) P.73 ⑥ 어린이들의 유희 (유채/1560년 작) 브뢰겔 P.74 ⑦ 궁정의 시녀들 (유채/1656년 작) 벨라스케스 P.74 ⑧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유채/1805~1807년작) 다비드 P.74 ⑨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유채/1803년 작) 들라크루아 P.74 ⑩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 (유채/1854년 작) 쿠르베 P.74 ⑪ 루앙 대성당 (유채/1894년 작) 모네 P.76 ⑫ 아니에르의 수욕 (유채/1883~1884년 작) 쇠라 P.76 ⑬ 사과와 오렌지 (유채/1897년 작) 세잔 P.76 ⑭ 왕의 슬픔 (구아슈, 색종이/1952년 작) 마티스 P.76 ⑮ 바이올린과 과일 (파피에 꼴레/1913년 작) 피카소 P.76 ⑯ 구성 Ⅶ (유채/1913년 작) 칸딘스키 P.77 ⑰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유채/1942년 작) 몬드리안 P.77 ⑱ 부 (아크릴/1978년 작) 바자렐리 P.77 ⑲ 인도의 여왕 (금속 분말, 감광액/1965년 작) 스텔라 P.78 ⑳ 공간 개념 (캔버스에 유채/1961년 작) 폰타나 P.78 ㉑ 좋아, 명중이야 (유채/1963년 작) 리히텐슈타인 P.78 ㉒ 개미 82 (아크릴 물감/1960년 작) 클랭 P.79

④ 미술 - (주) 지학사

(주) 지학사에서 다루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도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미술' - (주) 지학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길가에서 (캔버스에 유채/1954년) 박수근 P.63 ② 반구대 암각화 (신석기 시대~청동기 시대) P.68

		③ 무용총 수렵도 (회벽에 채색/ 고구려) P.68 ④ 정효 공주 묘 현실 인물도 (회벽에 채색/발해) P.69 ⑤ 수월관음도 (비단에 채색/고려) P.69 ⑥ 몽유도원도 (비단에 수묵 담채/조선) 안견 P.70 ⑦ 달마도 (종이에 수묵 담채/조선) 김명국 P.70 ⑧ 금강전도 (종이에 수묵 담채/조선) 정선 P.70 ⑨ 서당도 (종이에 수묵 담채/조선) 김홍도 P.71 ⑩ 호취도 (종이에 수묵 담채/조선) 장승업 P.72 ⑪ 노안도 (종이에 수묵/1910년) 조석진 P.72 ⑫ 운낭자상 (종이에 수묵 담채/1914년) 채용신 P.72 ⑬ 간성 (비단에 채색/1927년) 김은호 P.72 ⑭ 상황 (캔버스에 유채/1938년) 이쾌대 P.73 ⑮ 깡깡 무희 (캔버스에 유채/1940년) 나혜석 P.73 ⑯ 흰 소 (종이에 유채/1954년경) 이중섭 P.73 ⑰ 항아리 (유채/1955~1956년) 김환기 P.74 ⑱ 노묘 (종이에 수묵 담채/1968년) 장우성 P.74 ⑲ 외금강 삼선암 (종이에 수묵 담채/1976년) 변관식 P.75 ⑳ 전봉준 (종이에 채색/1985년) 박생광 P.75 ㉑ 조응 (캔버스에 안료/1995년) 이우환 P.75

<표 12> '미술' - (주) 지학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꽃과 과일 (캔버스에 유채/1723년) 하위쉼 P.61 ② 수련 (캔버스에 유채/1914~1926년) 모네 P.61 ③ 해바라기 (캔버스에 유채/1888~1889년) 반 고흐 P.61 ④ 꽃 (캔버스에 실크 스크린/1964년) 워홀 P.61 ⑤ 쿠에르나바카와 모렐로스 지방의 역사 중 절벽 건너기 (프레스코/1929~1930년) 리베라 P.62 ⑥ 세티 Ⅰ세와 하소르 여신 (돌에 채색/이집트) P.68 ⑦ 말 (라스코 동굴 벽화/구석기 시대) P.68 ⑧ 산 피에트로와 마르첼리노 (카타콤 천장화/4세기) P.69 ⑨ 의자에 앉은 마돈나 (목판에 유채/1514년) 라파엘 P.70 ⑩ 마라의 죽음 (캔버스에 유채/1793년) 다비드 P.70 ⑪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 (캔버스에 유채/1827년) 들라크루아 P.70

		⑫ 눈보라 속의 증기선 (캔버스에 유채/1842년) 터너 P.71 ⑬ 선상 위에서 식사 (캔버스에 유채/1880~1881년) 르누아르 P.71 ⑭ 화가의 작업실 (캔버스에 유채/1855년) 쿠르베 P.71 ⑮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889년) 반 고흐 P.71 ⑯ 서커스 (캔버스에 유채/1890~1891년) 쇠라 P.71 ⑰ 기타를 든 남자 (캔버스에 유채/1911년) 브라크 P.72 ⑱ 붉은 식탁 (캔버스에 유채/1908년) 마티스 P.72 ⑲ 황금 송아지를 위한 춤 (캔버스에 유채/1910년) 놀데 P.72 ⑳ 절대주의 (캔버스에 유채/1915년) 말레비치 P.73 ㉑ 넘버1 (캔버스에 에나멜, 유채, 알루미늄 페인트/1950년) 폴록 P.73 ㉒ 낙하 (캔버스에 에멀션/1963년) 라일리 P.74

⑤ 미술 - 천재교육

천재교육에서 다루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도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3> '미술' - 천재교육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작**	① 황묘농접 (종이에 채색/조선) 김홍도 P.10 ② 화조도 8곡병 (비단에 채색/조선) 작가 미상 P.11 ③ 대자연의 합창 (화선지에 혼합 재료/2006년) 이양원 P.11 ④ 인왕제색도 (종이에 수묵 담채/1751년) 정선 P.17 ⑤ 서울 - 인왕산 (종이에 수묵 담채/2005년) 오용길 P.17 ⑥ 옮겨진 산수유람기 085 (C-Print,싸이텍/2008년) 임택 P.17 ⑦ 자화상 (종이에 수묵 담채/조선) 윤두서 P.21 ⑧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943년) 문신 P.21 ⑨ 제주 생활의 중도 (장지 위에 혼합재료/2008년) 이왈종 P.24 ⑩ 행락도 (한지에 수간 채색/2005년) 박영길 P.24 ⑪ 긴 오후 (종이에 채색/2006년) 서은애 P.25 ⑫ 책가도 (캔버스에 펜과 아크릴/2006년) 김지혜 P.29 ⑬ 진귀한 그릇 꽃 열매 (비단에 채색/1917년) 이한복 P.36 ⑭ 묘작도 (비단에 수묵 담채/조선) 변상벽 P.37 ⑮ 창문 연작Ⅲ (혼합 재료/2002년) 김봉태 P.38

		⑯ 안중식 (도원문진/1913년) 안중식 P.52
	기타 작 (외국작가 작, 학생작)	① 꽃과 새 (한지에 채색) 학생작(김윤정) P.11 ② 신 풍속도 (종이에 담채) 학생작(장지우) P.25

<표 14> '미술' - 천재교육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이국적인 풍경 (캔버스에 유채/1908년) 루소 P.16 ② 개양귀비 언덕 : 아르장떼이유 근처의 양귀비 (캔버스에 유채/1873년) 모네 P.16 ③ 욕조 (종이에 파스텔/1885~1886년) 드가 P.18 ④ 대격전 (안료/1961년) 클랭 P.19 ⑤ 초콜릿 댄싱 (종이 위에 펜/1896년) 로트레크 P.34 ⑥ 풀밭 위에 점심 (캔버스에 유채/1863년) 마네 P.35 ⑦ 대사들 (떡갈나무 판에 유화/1533년경) 홀바인 P.36 ⑧ 올랭피아 (캔버스에 유채/1863년) 마네 P.37 ⑨ 바니타스 정물화 (나무판에 유채/1645년) P.37 ⑩ 절대주의 (캔버스에 유채/1915년) 말레비치 P.38 ⑪ 두 개의 원 (캔버스에 유채/1919년) 칸딘스키 P.38 ⑫ 빨간 모델 (캔버스에 유채) 마그리트 P.49 ⑬ 수변의 수렵 (회칠 벽에 채색/이집트) P.52 ⑭ 아테나 학당 (프레스코/1509~10년) 라파엘로 P.52 ⑮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캔버스에 유채/1885년) 쇠라 P.71
	기타 작 (외국작가 작, 학생작)	① 환상의 꽃 (종이에 수채) 학생작(노송희) P.48 ② 외출 (종이에 크레파스) 학생작(윤지영) P.48 ③ 아이들의 공간 (종이에 수채) 학생작(황금빛) P.53

⑥ 미술감상 - (주) 교학사

<표 15> '미술감상' - (주) 교학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박연 폭포 (비단에 수묵/1740년경) 정선 P.16 ② 폭포 (광목에 수묵/1977년) 김호득 P.16 ③ 외금강 삼선암 (수묵 담채/1966년) 변관식 P.17 ④ 인왕제색도 (비단에 담채/1751년) 정선 P.20 ⑤ 인왕산도 (종이에 담채/조선 후기) 강희언 P.20 ⑥ 비로봉도 (담채/조선 말기로 추정) 정선 P.21 ⑦ 청풍계도 (담채/1739년) 정선 P.21 ⑧ 초각산수도 (수묵 담채/19세기) 허건 P.23 ⑨ 비둘기 (캔버스에 유채/1963년) 박수근 P.68 ⑩ 나물 캐는 여인들 (하드보드지에 유채/1940년대) 박수근 P.68 ⑪ 아이 업은 소녀 (하드보드지에 유채/1953년) 박수근 P.68 ⑫ 나무와 여인 (하드보드지에 유채/1956년) 박수근 P.68 ⑬ 할아버지와 손자 (캔버스에 유채/1964년) 박수근 P.69 ⑭ 국화 (비단에 유채/18세기 후반) 정조 P.74 ⑮ 묘작도 (비단에 담채/17세기 말) 변상벽 P.74 ⑯ 책거리 (종이에 채색/조선) 작가 미상 P.74 ⑰ 호취도 (수묵 담채/19세기 후반) 장승업 P.74 ⑱ 군상 (한지에 수묵/1988년) P.114 ⑲ 문자추상 (한지에 수묵담채/1984년) P.114 ⑳ 영원의 노래 (캔버스에 유채/1963년) 김환기 P.115 ㉑ 매화와 항아리 (캔버스에 유채/1957년) 김환기 P.115 ㉒ 론도 (패널에 유채/1938년) 김환기 P.115 ㉓ 농원 (캔버스에 유채/1994년) 이대원 P.116 ㉔ 나무와 정자 (캔버스에 유채/1977년) 장욱진 P.117 ㉕ 자화상 (종이에 수묵/18세기 초반) 윤두서 P.118 ㉖ 공산무인도 (종이에 수묵/18세기) 최북 P.119 ㉗ 유하백마도 (비단에 수묵담채/18세기 초반) 윤두서 P.119 ㉘ 맹우도 (종이에 수묵담채/18세기 후반) 최북 P.119 ㉙ 빨래터 (종이에 수묵담채/18세기 후반) 김홍도 P.120

		㉚ 단오풍정 (종이에 수묵담채/18세기 후반) 신윤복 P.120 ㉛ 월하정인 (종이에 수묵담채/18세기 후반) 신윤복 P.121 ㉜ 마상청앵도 (종이에 수묵담채/18세기 후반) 김홍도 P.121

<표 16> '미술감상' - (주) 교학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음악과 춤 (유채/1638년) 푸생 P.12 ② 파리스의 심판 (유채/1636년) 루벤스 P.12 ③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유채/1830년) 들라크루 P.12 ④ 잔다르크 (유채/1854년) 앵그르 P.12 ⑤ 마리아를 경배하며 (캔버스에 유채/1891년) 고갱 P.13 ⑥ 왕의 슬픔 (색종이/1952년) 마티스 P.13 ⑦ 끝없는 리듬 (유채/1934년) 들로네 P.13 ⑧ 노랑, 빨강, 파랑 (유채/1925년) 칸딘스키 P.13 ⑨ 시녀들 (캔버스에 유채/1656년) 벨라스케스 P.14 ⑩ 시녀들 (캔버스에 유채/1957년) 피카소 P.15 ⑪ 수련 연못의 다리 (캔버스에 유채/1899년) 모네 P.18 ⑫ 일본식 다리 (유채/1918~1924년) 모네 P.19 ⑬ 수련 (유채/1916~1919년) 모네 P.19 ⑭ 무제 (유채/1952년) 로스코 P.19 ⑮ 회화 (유채/1950년) 데쿠닝 P.19 ⑯ 건초 수레 (유채/1821년) 컨스터블 P.23 ⑰ 성 안나와 성 모자 (나무에 유채/1508~1512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 P.24 ⑱ 키테라 섬으로의 출항 (유채/1717년) 바토 P.24 ⑲ 개울 건너서 (유채/1815년) 터너 P.24 ⑳ 생트빅투아르 산 (캔버스에 유채/1904~1906년) 세잔 P.25 ㉑ 꽃핀 사과나무 (유채/1912년) 몬드리안 P.25 ㉒ 종달새의 노래 (유채/1967년) 미로 P.41 ㉓ 종달새의 노래 () 베얼리 P.41

		㉔ 슈퍼맨 (뮤지움 보드에 실크스크린, 다이아몬드 가루 /1981년) 워홀 P.46 ㉕ 모나리자 (캔버스에 유채/1503~1506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P.46 ㉖ L.H.O.O.Q (복사된 원본에 연필/1919년) 뒤샹 P.46 ㉗ 레카미에 부인 (유채/1800년) 다비드 P.47 ㉘ 수즈 병과 잔 (신문, 드로잉/1912년) 피카소 P.49 ㉙ 엘 그레꼬의 예술 (잡지, 신문/1919~1920) 하우스만 P.49 ㉚ 잎의 습성 (연필/1925년) 에른스트 P.49 ㉛ 샤위춤 (캔버스에 유채/1888~1889년) 쇠라 P.64 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캔버스에 유채/1897년) 고갱 P.64 ㉝ 여기-루이다비드에게 표하는 경의 (캔버스에 유채 /1948~1949년) 레제 P.65 ㉞ 메두사의 뗏목 (유채/1819년) 제리코 P.65 ㉟ 목수성 요셉 (캔버스에 유채/1645년) 라투르 P.65 ㊱ 엿보는 여자와 꾸짖는 여자 (패널에 유채/1655년) 마스 P.65 ㊲ 자화상 (패널에 유채/1628년) 렘브란트 P.66 ㊳ 렘브란트의 젊은 날의 자화상 (패널에 유채/1634년) 렘브란트 P. 66 ㊴ 34살의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640년) 렘브란트 P.66 ㊵ 자화상 (패널에 유채/1657년) 렘브란트 P.66 ㊶ 사도 바울로 분장한 렘브란트 (유채/1661년) 렘브란트 P.66 ㊷ 저승에서 자화상 (유채/1895년) 뭉크 P.67 ㊸ 담배를 쥔 자화상 (유채/1895년) 뭉크 P.67 ㊹ 와인병이 있는 자화상 (유채/1906년) 뭉크 P.67 ㊺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유채/1930년 초) 페르메이 P.69 ㊻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유채/1665년) 페르메이르 P.69 ㊼ 봄 (유채/1573년) 아르침볼도 P.72 ㊽ 여름 (유채/1573년) 아르침볼도 P.72 ㊾ 가을 (유채/1573년) 아르침볼도 P.72

		㊿ 겨울 (유채/1573년) 아르침볼도 P.72 51 오감 (나무에 유채/1630년) 뤼뱅 보갱 P.72 52 미와 사랑의 알레고리 (나무에 유채/1540~1550년) 브론치노 P.73 53 돌 깨는 사람들 (유채/1849년) 쿠르베 P.75 54 모르트퐁테인의 추억 (유채/1864년) 코로 P.75 55 안개 낀 산 위의 방랑자 (유채/1818년) 프리드리히 P.75 56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유채/1848년) 다비드 P.75 57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유채/1830년) 들라크루아 P.75 58 양치기 소녀와 양떼 (유채/1864년) 밀레 P.75 59 뱃놀이 (유채/1881년) 르누아르 P.76 60 붉은 조끼의 소년 (유채/1894~1895년) 세잔 P.76 61 식사 (유채/1891년) 고갱 P.76 62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 (유채/1887년) 반 고흐 P.76 63 아비뇽의 처녀들 (유채/1907년) 피카소 P.76 64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2(유채/1912년) 뒤샹 P.77 65 베를린 거리 (유채/1913년) 키르히너 P.77 66 흰색 위에서 (유채/1922년) 칸딘스키 P.77 67 오이디프스의 왕 (유채/1922년) 에른스트 P.77 68 비극 (나무판에 유채/1903년) 피카소 P.78 69 잠든 페히쉬타인 (유채/1910년) 헤켈 P.78 70 나막신 한 켤레 (캔버스에 유채/1889년) 반 고흐 P.79 71 루이 14세 (유채/1701년) 리고 P.79

⑦ 미술감상 - 미진사

미진사에서 다루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도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7> '미술감상' - 미진사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자화상 (종이에 옅은 채색/1710년경) 윤두서 P.7 ② 산꽃 (캔버스에 유채/1993년) 강요배 P.9 ③ 설악산 풍경 (캔버스에 유채/2008년) 김종학 P.9

		④ 작품 (캔버스에 유채/1981년) 유영국 P.9 ⑤ 앉아 있는 여인 (캔버스에 유채/1958년) 박수근 P.13 ⑥ 인왕제색도 (종이에 수묵/1751년) 정선 P.18 ⑦ 광화문에 뜬 달 (나무 합판/2007년) 강익중 P.31 ⑧ 울주 천전리 암각화 (신석기 시대) P.35 ⑨ 무용총 수렵도 (고구려 6세기경) P.35 ⑩ 수월관음도 (비단에 채색/고려) 서구방 P.37 ⑪ 금강전도 (종이에 옅은 채색/조선) 정선 P.37 ⑫ 도원문진 (비단에 채색/19세기 후반) 안중식 P.37 ⑬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915년) 고희동 P.37 ⑭ 작품 (1990년) 유영국 P.90 ⑮ 문자 추상 (1979년) 이응노 P.90 ⑯ 바람과 함께 (1987년) 이우환 P.90 ⑰ 묘법 (1973년) 박서보 P.90 ⑱ 전봉준 (화선지에 채색/1985년) 박생광 P.100 ⑲ 미인도 (비단에 채색/1935년) 김은호 P.101 ⑳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종이에 채색/1977년) 천경자 P.101 ㉑ 명성황후 (화선지에 채색/1984년) 박생광 P.102 ㉒ 토함산 해돋이 (화선지에 채색/1981년) 박생광 P.103 ㉓ 무당 (화선지에 채색/1983년) 박생광 P.103 ㉔ SH83008 (마포에 유채/1983년) 감창열 P.104 ㉕ 물방울 (캔버스에 유채/1979년) 김창열 P.105

<표 18> '미술감상' - 미진사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게르니카 (벽화/1937년) 피카소 P.6 ②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659년) 렘브란트 P.7 ③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캔버스에 유채/1884~86년) 쇠라 P.8 ④ 아테네 학당 (프레스코/1509~1510년) 라파엘로 P.13 ⑤ 별이 빛나는 밤 (캔버스에 유채/1889년) 반 고흐 P.13 ⑥ 적,황,흑,청의 구성 (캔버스에 유채/1921년) 몬드리안 P.14 ⑦ 고흐의 방 (캔버스에 유채/1888년) 반 고흐 P.16 ⑧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640년) 렘브란트 P.20

		⑨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919년) 호안 미로 P.20 ⑩ 마스크를 쓴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928년) 펠릭스 누스바움 P.20 ⑪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992년) 페르난도 보테로 P.20 ⑫ 라스코 동굴 벽화 (기원전15000~13000년 경) P.46 ⑬ 리비아의 무녀 (시스티나 예배당 프레스코화/1509~1512년) 미켈란젤로 P.47 ⑭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캔버스에 유채/1830년) 들라크루아 P.47 ⑮ 이삭 줍는 사람들 (캔버스에 유채/1857년) 밀레 P.47 ⑯ 설교 후의 환영 - 천사와 싸우는 야곱 (캔버스에 유채/1888년) 고갱 P.48 ⑰ 수련 연못: 초록빛 하모니 (캔버스에 유채/1899년) 모네 P.48 ⑱ 꿈 (캔버스에 유채/1910년) 루소 P.48 ⑲ 끈에 묶인 개의 역동성 (캔버스에 유채/1912년) 발라 P.48 ⑳ 기계적 요소 (캔버스에 유채/1918~1923년) 레제 P.48 ㉑ 포츠담 광장 (캔버스에 유채/1914년) 키르히너 P.49 ㉒ 거리의 우울과 신비 (캔버스에 유채/1914년) 데 키리코 P.49 ㉓ 여인 (캔버스에 유채/1950~1952년) 데 쿠닝 P.49 ㉔ 리히텐슈타인, 무, 물론 (캔버스에 유채와 마그나 안료/1965년) P.50 ㉕ 클로스, 수잔 (캔버스에 아크릴/1971년) P.50 ㉖ 캘리포니아 알레고리 (프레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증권사 내부 벽화/1931년) 리베라 P.54 ㉗ 파리스의 심판 (인그레이빙/1515년경)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 P.63 ㉘ 파리스의 심판 (캔버스에 유채/1908년) 르누아르 P.63 ㉙ 파리스의 심판 (캔버스에 유채/1528년) 크라나흐 P.64 ㉚ 파리스의 심판 (캔버스에 유채/1599년) 발렌 P.64 ㉛ 파리스의 심판 (캔버스에 유채/1718년) 와토 P.64 ㉜ 파리스의 심판 (캔버스에 유채/1636년경) 루벤스 P.64 ㉝ 파리스의 심판 (캔버스에 유채/1912년) 키르히너 P.64 ㉞ 오디세우스와 세이렌 (캔버스에 유채/1891년경)

		워터하우스 P.65 ㉟ 어부와 세이렌 (캔버스에 유채/1891년) 레이턴 P.65 ㊱ 물뱀1 (양피지에 수채와 금색 안료/1904~1907년) 클림트 P.65 ㊲ 기도하는 손 (종이에 브러쉬와 잉크/1508년경) 뒤러 P.68 철갑 코뿔소 (펜 드로잉/1515년) 뒤러 P.69 ㊳ 자화상 (패널에 유채/1500년) 뒤러 P.69 ㊴ 쾌락의 동산 (패널에 유채) 보슈 P.70 ㊵ 사냥꾼의 귀가 (패널에 유채/1565년) 브뢰헬 P.70 ㊶ 대사들 (패널에 유채/1533년) 홀바인 P.70 ㊷ 구성No.7 (캔버스에 유채/1913년) 칸딘스키 P.72 ㊸ 즉흥No.19 (캔버스에 유채/1911년) 칸딘스키 P.73 ㊹ 노랑, 빨강, 파랑 (캔버스에 유채/1925년) 칸딘스키 P.73 ㊺ 흰 바탕 위의 검은 사각형 (캔버스에 유채/1915년) 말레비치 P.74 ㊻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캔버스에 유채/1942~1943년) 몬드리안 P.74 ㊼ 저녁:붉은 나무 (캔버스에 유채/1908년) 몬드리안 P.74 ㊽ 회색 나무 (캔버스에 유채/1911년) 몬드리안 P.74 ㊾ 꽃피는 사과나무 (캔버스에 유채/1912년) 몬드리안 P.74 ㊿ 별이 빛나는 바다 (캔버스에 유채/1914년) 몬드리안 P.74 51 L.H.O.O.Q. (모나리자 복제화에 연필/1919년) 뒤샹 P.79 52 피레네의 성 (캔버스에 유채/1959년) 마그리트 P.81 53 겨울비 (캔버스에 유채/1953년) 마그리트 P.81 54 개인적 가치 (캔버스에 유채/1952년) 마그리트 P.81 55 기억의 고집 (캔버스에 유채/1931년) 달리 P.82 56 어릿광대의 카니발 (캔버스에 유채/1924~1925년) 미로 P.82 57 사랑의 노래 (캔버스에 유채/1914년) 데 키리코 P.82 58 복수의 세 여신 (캔버스에 유채/1950년) 마송 P.82 59 침묵의 눈 (캔버스에 유채/1943~1944년) 에르스트 P.82 60 No.1 (캔버스에 유채/1948년) 폴록 P.88 61 여인 (캔버스에 유채/1950~1951년) 데 쿠닝 P.89 62 뉴욕 (캔버스에 유채/1953년) 클라인 P.89

		⑥③ 무제 (캔버스에 유채/1962년) 로스코 P.89 ⑥④ 알파-파이 (캔버스에 아크릴/1960년) 루이스 P.89 ⑥⑤ No.28 (캔버스에 에나멜/1950년) 폴록 P.90 ⑥⑥ 마릴린 먼로 (종이에 실크 스크린/1967년) 워홀 P.92 ⑥⑦ 흰 칼라의 벨라 (캔버스에 유채/1917년) 샤갈 P.95 ⑥⑧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캔버스에 유채/1665년) 페르메이르 P.95 ⑥⑨ 질투 (캔버스에 유채/1895년) 뭉크 P.95

⑧ 미술감상 -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다루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도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9> '미술감상' - 경상북도 교육청 : 한국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물고기 (종이에 수묵) 박래현 P.64 ② 첫눈 (청바지천/2008년) 최소영 P.71 ③ 소나무 (흑백사진/1992년) 배병우 P.76 ④ 토요미스테리극장 (수묵담채/1995년) 김호석 P.82 ⑤ 묵폭도 (수묵담채) 강장원 P.82 ⑥ 사색의 여행 (장지에 수묵/2001년) 윤여환 P.82 ⑦ 동강전도 (수묵담채/1999년) 이호신 P.82 ⑧ 계산포무도 (종이에 수묵/1849년) 전기 P.83 ⑨ 홍매대련 (종이에 담채) 조희룡 P.83 ⑩ 난초대련 (종이에 수묵) 이하응 P.83 ⑪ 국화 (종이에 수묵) 정조 P.83 ⑫ 통죽도 (종이에 수목) 이정 P.83 ⑬ 옥순봉도 (종이에 담채/1796년) 김홍도 P.83 ⑭ 국정추묘도 (한지에 담채) 변상벽 P.84 ⑮ 개양귀비 (종이에 채색/2005년) 노숙자 P.84 ⑯ 최익현 초상 (빈단에 채색) 채용신 P.84 ⑰ 화조도 (민화, 종이에 채색) P.84 ⑱ 전봉준 (화선지에 채색/1985년) 박생광 P.84 ⑲ 사랑의 노래 (2007년) 남정예 P.84

		⑳ 우산-인왕제색 (한지에 수묵채색/2007년) 박인현 P.85 ㉑ 말 징 박기 (종이에 담채/18세기) 조영석 P.86 ㉒ 무용도 (무용총/5세기경) P.86 ㉓ 무동 (종이에 담채/18세기) 김홍도 P.87 ㉔ 연소답청 (종이에 담채/18세기 말) 신윤복 P.87 ㉕ 철종어진 (1861년) 이한철, 조중묵 P.90 ㉖ 영조어진 (비단에 채색/1744년) 원본 소실 P.90 ㉗ 고종황제어진 (비단에 채색/근대) 채용신 P.90 ㉘ 무진년 진찬도 중 통명전 익일회작 (비단에 채색/1848년) 작자 미상 P.91 ㉙ 화성능행도 중 빈 가마 (종이에 채색/조선후기) 작자미상 P.91 ㉚ 왕세자입학도첩 중 출궁도 (종이에 채색/19세기) 작자미상 P.91 ㉛ 숙종이 베푼 기해년의 경로잔치 (종이에 채색/1720년) 작자 미상 P.91 ㉜ 정조의 현륭원 행차 (비단에 채색) 김득신 P.91 ㉝ 단오풍정 (수묵담채/18세기) 신윤복 P.104 ㉞ 송하맹호도 (비단에 채색/18세기) 김홍도 P.104 ㉟ 인왕제색도 (종이에 수묵/1751년) 정선 P.104 ㊱ 맷돌질하는 여인 (하드보드에 유채/1940년대) 박수근 P.104 ㊲ 아이들 (은지화/1950년대) 이중섭 P.105 ㊳ 호취도 (종이에 수묵 담채/19세기) 장승업 P.105 ㊴ 무희 (캔버스에 유채/1940년) 나혜석 P.110 ㊵ 별장 (유채/1935년) 나혜석 P.111 ㊶ 우리의 영광스러운 핵폭탄 실험 성공을 축하하며 (종이에 수묵 담채/1965년) 오호범 P.112 ㊷ 군상 (캔버스에 유채/1948년) 이쾌대 P.116

<표 20> '미술감상' - 경상북도 교육청 : 서양화 관련 도판 및 내용

도판	작가 작	
		① 음악가들 (1979년) 보테로 P.59 ② 드 브로그리 왕자비의 초상 (캔버스에 유채/1853년) 앵그르 P.59

		③ 채석장 (캔버스에 유채/2005년) 마이어 P.59 ④ 아테네 학당 (프레스코/1510년) 라파엘로 P.59 ⑤ 야간순찰 (캔버스에 유채/1642년) 렘브란트 P.60 ⑥ 마태오 간택 (캔버스에 유채/1600년) 카라바조 P.60 ⑦ 노햄성, 일출 (캔버스에 유채/1845년) 터너 P.60 ⑧ 아이리스 (캔버스에 유채/1890년) 반 고흐 P.62 ⑨ 블루11 (캔버스에 유채/1961년) 미로 P.62 ⑩ 무지개 (캔버스에 유채/1967년) 샤갈 P.62 ⑪ 그네 (캔버스에 유채/1876년) 르누아르 P.63 ⑫ 말이 있는 풍경 (캔버스에 유채/1910년) 마르크 P.63 ⑬ 엡섬의 우아한 사람들 (1939년) 뒤피 P,63 ⑭ 검정과 회색의 배열 : 화가의 어머니 (캔버스에 유채/1871년) 휘슬러 P.64 ⑮ 베가 200 (아크릴/1968년) 바자렐리 P.64 ⑯ 성 삼위일체 (캔버스에 유채/1979년) 그레코 P.65 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캔버스에 유채/1830년) 들라크루아 P.65 ⑱ 검은 원 (캔버스에 유채/1913년) 말레비치 P.65 ⑲ 비극 (나무판에 유채/1903년) 피카소 P.65 ⑳ 인체측정 (1960년) 클랭 P.71 ㉑ 농가의 결혼잔치 (목판에 유채/1568년) 브뢰겔 P.88 ㉒ 우유를 따르는 여인 (캔버스에 유채/1660년) 페르메이르 P.88 ㉓ 야채 상품 진열대의 시장 주인 (판넬에 유채/1567년) 에르첸 P.88 ㉔ 유행에 따른 결혼 (캔버스에 유채/1745년) 호가스 P.89 ㉕ 키질하는 여인 (캔버스에 유채/1853년) 쿠르베 P.89 ㉖ 밤의 레스토랑 (캔버스에 유채/1942년) 호퍼 P.89 ㉗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캔버스에 유채/1807년) 다비드 P.92 ㉘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 (캔버스에 유채/1602년) 카라바조 P.92 ㉙ 엘리자베스 1세 (캔버스에 유채/1592년) 헤라르츠 P.92 ㉚ 헨리 8세 (패널에 템페라/1540년) 홀바인 P.92

		㉛ 부채를 든 여인 (캔버스에 유채/1873년) 마네 P.107 ㉜ 도자기 나라의 공주 (캔버스에 유채/1864년) 휘슬러 P.107 ㉝ 일본 여인 (캔버스에 유채/1876년) 모네 P.107 ㉞ 붉은 가오리 (캔버스에 유채/1728년) 샤르댕 P.107 ㉟ 사과와 병 (캔버스에 유채/1894년) 세잔 P.107 ㊱ 올랭피아 (캔버스에 유채/1863년) 마네 P.108 ㊲ 아비뇽의 처녀들 (캔버스에 유채/1907년) 파카소 P.109 ㊳ 까마귀가 있는 밀밭 (캔버스에 유채/1890년) 반 고흐 P.109 ㊴ 1808년 5월 3일 (캔버스에 유채/1814년) 고야 P.109 ㊵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1630년) 젠틸레스키 P.110 ㊶ 아기 목욕 (캔버스에 유채/1893년) 커셋 P.111 ㊷ 다친 사슴 (캔버스에 유채/1946년) 칼로 P.111 ㊸ 마라의 죽음 (유채/1793년) 다비드 P.113 ㊹ 1808년 5월 2일, 마멜루크족의 진격 (캔버스에 유채/1814년) 고야 P.113 ㊺ 검은 십자기 (캔버스에 유채/1915년) 말레비치 P.113 ㊻ 프레스코의 제작 (1931년) 리베라 P.113 ㊼ 게르니카 (캔버스에 유채/1937년) 피카소 P.115 ㊽ 노예선 (캔버스에 유채/1840년) 터너 P.116 ㊾ 메두사호의 뗏목 (캔버스에 유채/1819년) 제리코 P.116 ㊿ 삼등열차 (캔버스에 유채/1862년) 도미에 P.116

총 8종의 개정된 교과서에서 한국회화와 서양회화의 도판을 분석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총 8종의 개정된 교과서 한국회화 도판 수 분석 결과

순위	작가	8종 교과서 등장 횟수	가장 많이 등장한 작품	작품 등장 횟수
1	정선	12	인왕제색도	5
			금강전도	3
2 (공동)	김홍도	7	서당도, 황묘농접, 빨래터, 무동, 마상청앵도, 옥순봉도, 송하맹호도	1
	박수근	7	골목안, 창신동 집, 길가에서, 비둘기, 나물 캐는 여인들, 앉아 있는 여인, 맷돌질하는 여인	1
3 (공동)	신윤복	6	단오풍정	3
			선유도, 월하정인, 연소답청	1
	박생광	6	전봉준	3
			명성황후, 토함산 해돋이, 무당	1

※ 횟수는 총 8종의 교과서에 나온 작품의 수를 모두 더한 것을 뜻함

<표 22> 총 8종의 개정된 교과서 서양회화 도판 수 분석 결과

순위	작가	8종 교과서 등장 횟수	가장 많이 등장한 작품	작품 등장 횟수
1	모네	11	수련	3
			해 뜨는 인상, 햇빛 소의 건초더미, 루앙 대성당, 수련 연못의 다리, 일본식 다리, 수련 연못, 일본 여인, 개양귀비 언덕	1
2 (공동)	반 고흐	10	별이 빛나는 밤	2
			밤의 카페, 해바라기, 자화상,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 나막신 한 켤레, 고흐의 방, 아이리스, 까마귀가 있는 밀밭	1
	피카소	10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 비극	2
			기타, 바이올린과 과일, 시녀들, 수즈 병과 잔	1
3	다비드	6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마라의 죽음	2
			레카미에 부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1

※ 횟수는 총 8종의 교과서에 나온 작품의 수를 모두 더한 것을 뜻함

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회화의 감상영역은 정선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8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작품은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순으로 나타났다. 정선 다음으로는 김홍도와 박수근이 많이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신윤복과 박생광 순으로 나타났다.

서양회화의 감상영역은 모네가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었고, 그의 작품 중 “수련”이 제일 많이 실려 있었다. 모네 다음으로는 근소한 차이로 반 고흐와 피카소가 그 다음으로는 다비드, 고야 순으로 나타났다.

감상 영역에서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정선과 모네는 각각 한국회화와 서양회화에서 대표할 만한 작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요한 만큼 학생들에게 풍부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하나의 교과서만을 고집하지 말고 출판사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다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참고하여 보다 넓은 시각으로 수업을 지도하는 안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미술 감상 교육의 문제점

로웬펠트(Lowenfeld)는 학생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넓혀 문화예술의 감정과 새로운 감각의 가능성을 계발시켜야 한다.[37]고 했으며 아이스너(Eisner)는 최근 미술 감상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제작 중심으로 미술 교육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개탄하고 표현만이 미적 감각을 함양하는 수단이 아님을 지적하였다.[38] 학자들의 이런 생각에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여 미술 감상학습의 중요성이 주장되면서 미술학습에서 감상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감상 활동은 표현활동의 동기를 유발하며, 작품을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를 보면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39]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비평 능력은 인지적이고 심동적인 측면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써 비평 능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술 문화를 향수할 줄 아는 인간을 기르고자 한다. 미술의 가치 이해와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는 감상 영역의 중요성은 크다 하겠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감상 영역의 비중이 낮은 교과서 편제, 교사중심의 지식 전달식 수업, 감상 자료의 미비로 감상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감상 교육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교과서 내의 감상 영역의 비중이 낮다. 출판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상 영역은 교과서 맨 뒤에 구성되어 있고 페이지 수도 적다. 또한 중요한 작품과 해당 시대사조는 실려 있지만 해당하는 시대적 ·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이 적어 그 작품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표현 활동에 치우쳐 있는 교과서 편제는 미술의 기능교육

37) Viktor Lowenfeld,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1964, P.57~58.
38) Elliot W. Eisner, 「Educating Artistic Educating」, VA:National Art Educating Association, 1997, P.65~71, 106~112 참조.
39) 교육과학기술부(B), 전게서, P.14.

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

둘째, 교사중심의 지식 전달식 수업이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편적으로 작품의 시대적 특징이나 양식의 변천, 작가의 생애 등을 나열하는 지식 전달식의 수업은 암기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상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의미나 가치의 발견보다는 이미 역사적으로 작품 속에 '갇혀 있는 의미'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학습 받고, 이를 맹신하는 교육에 길들여져서 더 이상의 탐구적 사고를 하지 않으려는 타성에 빠져들게 한다.[40]

셋째,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과 감상 자료의 미비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기능 수업 위주의 표현 중심 미술 교육을 받아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상 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비평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사에게 미술과 수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미술 작품 감상 수업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변화된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감상 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반면, 교사들은 그들의 교육 기간 동안 미술 작품에 친밀해지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41] 이로 인한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과 감상 자료의 미비는 교사들로 하여금 감상 수업을 회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감상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심미적인 면, 지각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상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감상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

40) 박휘락, 전게서, P.68.
41) 전성수, 「미술 감상과 비평교육의 쟁점과 방향」, 『사향미술교육논총』, 2004, P.49.

Ⅳ. Neo-DBAE를 적용한 미술 감상교육

1. Neo-DBAE에 기반을 둔 미술 감상교육의 방향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미술교육도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변화해 가고 있다. 범람하는 시각적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이를 이해, 해석, 판단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구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 미술교육에 요구하는 과제이며, 이것은 미학적 판단에 근거한 비평적 사고활동이 창작활동으로 이어지는 Neo-DBAE 접근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42] Neo-DBAE에 기초를 둔 미술 감상교육의 방향을 시각적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비평교육, 다양한 문화의 이해, 통합적 지도방법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시각적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비평교육이 있다. 정보화 사회는 시각정보의 대상을 읽고 그 지식을 활용, 판단하며 선택하여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인 시각적 문해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시각적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 창조하는 활동인 미술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Neo-DBAE의 네 영역을 통한 체계적 접근은 미술을 통한 시각적 문해력 신장을 추구하며 비평 활동과 창작 활동을 통해 시각정보에 대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가 되었고 각국의 문화는 빠르게 교류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의 이해는 미술형식과 확장을 통하여 시도되며 순수미술을 비롯하여 공예, 디자인, 만화, 영화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의 미술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Neo-DBAE는 미술문화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43] 2011년 개정되어 나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미술

42) 최미경(B), 전게서, P.87.
43) 최미경(B), 전게서, P.87-93을 참조하여 작성함.

문화’ 교과서 안에 미술의 기능과 미술 감상, 미술의 확장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있다. 교수 · 학습방법에서도 성별, 민족, 종교 등 다양한 문화를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미술 전문 용어를 습득하여 감상과 비평 활동에 적절히 활용되도록 한다.[44] 이것은 Neo-DBAE의 미술작품에 대한 맥락적 이해의 접근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셋째, 통합적 지도 방법이 있다. Neo-DBAE의 네 영역의 중첩 및 선택적 적용, 타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 방법은 문화이해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탐색은 과거와 현재의 관련 학문간 통합 연구가 병행되어야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맥락적 이해를 위하여 관련 교과 간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 방법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45] 하지만 Ⅲ장의 회화 영역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표현 영역의 비중이 높고 감상 영역의 비중이 낮았다. 때문에 작품을 사회적 ·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에서는 표현과 감상, 감상과 타 교과가 상호작용하여 미술교육의 내 · 외적 통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적 접근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Neo-DBAE에 기반을 둔 미술 감상교육은 새로운 시대의 경향성을 수용하여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시각적 문해력 신장을 통해 미적 안목을 기르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애호하여 세계화의 추세 속에 ‘문화인’, ‘세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44) 교육과학기술부(A), 전게서, P.27.
45) 최미경(B), 전게서, P.94.

2. 실제적 적용 방안

Neo-DBAE의 통합성, 다양한 문화 경험, 창작을 통한 실질적인 체험 등의 장점을 수용하여 고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회화영역의 구체적인 감상 수업지도안을 모색해본다. 이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 타 교과와의 통합,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창작의 중시,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1) Neo-DBAE이론에 근거한 한국회화 감상

가. 정선의 인왕제색도 - 미술과 국사의 통합

조선 후기는 가장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화풍이 유행했던 시기이다. 조선 후기에는 종래의 부당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불합리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꾀하는 등 공리가 아닌 현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실용적 태도를 취했던 실학이 영조와 정조를 거쳐 순조조에 이르는 동안 뚜렷하게 형성되었다.[46]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를 추구하였던 실학의 대두는 정치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 회화에서 새로운 화법의 전개와 새로운 회화관의 탄생에 기반을 둔 주요한 한가지로 진경산수화의 대두가 있다. 조선후기 회화에서 진경산수화는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그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게 하는 단서가 되며, 우리 주변 강산을 대상으로 우리 정서의 표현양식을 구축해 내었다. 진경산수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인,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의 진경산수는 그 어떤 시기의 산수화보다도 한국적 개성이 넘치는 독특한 화풍의 성립에 성공하였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성공한 위대한 화가인 그는 조선성리학이라는 우리 고유사상

46)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P.642.

을 바탕으로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하여 중국풍의 그림을 답습하던 종래 화가들의 관념산수에서 벗어나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직접 사생하여 이를 고차원적인 회화미로 표현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47]

정선은 서울의 북촌에 살면서 서울 주변의 경관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승경들을 화폭에 담았다. 그의 진경산수화풍은 그 이전의 전통화풍과 너무나도 달라서 그의 친구인 조영석은 정선이 회화에 있어서 개벽을 이룩했다고까지 단언하였다.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은 화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사대부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정선과 그 일파의 화가들에 의해 진경산수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18세기에 팽배하였던 민족적 자아의식, 여행 붐, 지도제작의 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48]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1751년 76세에 그린 것으로 진경산수화의 절정을 나타낸다. 비가 내린 후 개이고 있는 인왕산의 경치가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화면을 압도하는 인왕산 바위를 포착하여 강조, 과장하여 화면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양감이 풍부한 암벽의 처리, 농묵으로 능란하게 처리된 소나무들 등 정선만의 화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우리의 산천을 우리 고유의 회화로 정식화하고 새로운 화법으로 내면적인 특질을 표현했던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우리 회화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정선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앞의 3장에서 회화영역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7차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8권의 교과서에서 정선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제일 많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우리 나라 회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선의 "인왕제색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8권의 교

47) 박병률, 「조선시대 후기 회화 연구 :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의 진경산수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3.
48) 안휘준 외,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3, P.492.

과서에서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다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중요한지, 왜 “인왕제색도”가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교학사 ‘미술 감상’ 교과서의 P.20을 보면 정선을 주제로 그의 작품들이 실려있다. 하지만 이론적 배경보다는 표현 기법이나 표현양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정선의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고려하여 본 감상 수업지도방안에서는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국사교과와 통합하여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Neo-DBAE를 적용한 국사교과와의 통합적인 감상 수업지도방안을 통해 기법 중심에서 벗어나 감상과 이해,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며, 총체적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와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본 지도안은 총 2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시별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나. 본시학습지도안

① 단원명

- 대단원 : 감상
- 소단원 : 우리의 산천을 우리의 정신으로 그려낸 정선

②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통해 조선후기에 유행하였던 진경산수화의 의미와 중요성, 탄생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더불어 국사교과와 연계하여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조선후기의 진경산수화를 심도 있게 학습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진경산수화를 직접 표현해봄으로써 선조들의 정신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한다.

③ 단원의 목표

·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통해 진경산수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국사교과와 연계하여 진경산수화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작품 감상을 통해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 정선의 “인왕제색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진경산수화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전통회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④ 수업 계획

본 단원은 감상지도를 중점으로 미술사와 국사교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수업을 계획한다. 진경산수화의 시대적 배경,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중요한 이유 등을 국사교과와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사고를 확장시키고 폭 넓은 경험을 유도하도록 한다. 국사교과를 통해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그 시대의 배경을 심도 있게 감상하고, 나아가 전통회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감상을 토대로 작품활동을 진행하고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봄으로써 보다 넓은 시각적 안목을 갖게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반응 중심 학습법으로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방해받지 않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상활동지를 작성함으로써 사고를 구체화시키고 언어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감상활동을 토대로 작품활동을 하며, 발표를 통해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표 23> 한국회화 감상 - 차시별 지도계획

<table>
<tr><td colspan="2">대영역</td><td>감상</td><td>중영역</td><td>조선후기 전통회화 감상</td><td>수업 제재</td><td>인왕제색도</td></tr>
<tr><td colspan="2">단원명</td><td colspan="5">우리의 산천을 우리의 정신으로 그려낸 정선</td></tr>
<tr><td colspan="2">학습 목표 (성취기준)</td><td colspan="5">1)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통해 진경산수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국사교과와 연계하여 진경산수화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3) 작품 감상을 통해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4) 정선의 “인왕제색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진경산수화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6)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전통회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td></tr>
<tr><td colspan="2" rowspan="3">학습자료</td><td rowspan="2">재료 용구</td><td>교사</td><td colspan="3">파워포인트 및 멀티미디어 자료, 감상활동지, 참고자료(천원짜리 지폐)</td></tr>
<tr><td>학생</td><td colspan="3">필기도구, 교과서</td></tr>
<tr><td>웹자료</td><td>자료1</td><td colspan="3">http://cafe.naver.com/sangsangmaru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78&</td></tr>
<tr><td rowspan="3">학습 전개 과정</td><td>차시</td><td></td><td colspan="2">학습목표 (성취기준)</td><td>학습과정</td><td>관련영역과 통합요소</td><td>배당시간</td></tr>
<tr><td>1/2 본시</td><td>감상</td><td colspan="2">•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통해 진경산수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국사교과와 연계하여 진경산수화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작품 감상을 통해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td><td>-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통한 진경산수화의 이론적 배경 설명

-감상 활동 후 감상활동지 작성</td><td>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국사</td><td>50’</td></tr>
<tr><td>2/2</td><td>표현</td><td colspan="2">• 정선의 “인왕제색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진경산수화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전통회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td><td>-지난시간 배웠던 정선의 “인왕제색도” 복습
-여행사진을 활용하여 나만의 진경산수화 표현
-친구들과 함께 감상 후 토론</td><td>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미술표현</td><td>50’</td></tr>
</table>

⑤ 수업 지도시 유의사항

◉ 지도 방법

-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선의 작품으로 감상의 흥미를 높여준다.
- 학습 주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자극해 반응을 충분히 유도한다.
-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타 과목과의 통합적 접근으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여 이해를 돕는다.
- 주제, 이론적 배경, 재료,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상활동지를 통해 주제, 표현 특징, 의미, 중요성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 교실 전체 분위기를 점검하고 주의집중 시킨다.
- 감상활동을 돕는 멀티미디어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감상 작품에 대한 설명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미술과 국사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 감상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국사의 참고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 교사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발문을 하고 학생의 질문에 적절한 피드백을 하여 설명을 보충하도록 한다.
- 감상 자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교사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 감상활동지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 분석이 포함되도록 하며 국사 교과와 연계하여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⑥ 본시 학습지도안

<표 24> 한국회화 감상 - 1차시 본시학습지도안

단원명	정선의 “인왕제색도”		차시	1/2
학습 목표	1)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통해 진경산수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국사교과와 연계하여 진경산수화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3) 작품 감상을 통해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학습 준비물	교사	파워포인트 및 멀티미디어 자료, 감상활동지, 참고자료(천원짜리 화폐)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학습 절차	학습 과정	학습 및 활동 내용		소요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인사 및 출결 확인	교사와 학생 상호 인사 및 출석확 - 안부 인사 및 출석	-인사		
	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 제시	**[동기유발]** 천원짜리 지폐의 뒷면을 보여주며 누구의 작품인지 흥미를 유발한다. 발문) 여러분, 천원짜리 지폐의 뒷면에 인쇄된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일까요? **[정선에 대하여 설명]** 천원짜리 화폐에 그려진 그림이 정선의 그림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조선후기 작가인 정선에 대하여 설명한다. **[학습목표 제시]** 우리만의 화풍을 그린 정선은 진경산수화의 창시자입니다. 천원짜리 화폐 뒷면에 있는 그림도 진경산수	자유롭게 대답 한다. -안견이요. 윤두서요. 정선이요.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 정선의 “인왕	10분	인사 및 출결 확인 · 주의 집중

		화에 속합니다. 오늘은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의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학습목표를 큰소리로 읽게 한다. -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통해 진경산수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국사교과와 연계하여 진경산수화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작품 감상을 통해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제색도”를 통해...		
전개	도판 감상 및 설명	**[진경산수화의 용어 설명]** 발문) 진경산수화란 무엇인가요? -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산천을 한국적 화풍으로 묘사한 것으로, 풍경을 화폭에 옮길 때 작가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며 경치를 보고 느낀 감동에 충실 한다. 정선에 의해 진경산수화가 창시되고 완성되어 졌으며 그림의 소재로는 금강산, 인왕산 등 우리나라의 경치가 많이 이용되었다. **[국사교과와 연계하여 진경산수화의 이론적 배경 설명]** 발문) 진경산수화는 언제부터 그려졌을까요? - 조선후기는 실학의 대두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하여 한국적 미술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여행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며 여행이 활성화 되고 지도 제작이 붐을 일으키면서 진경산수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선에 대한 설명]** 정선의 작품을 보여주며 감상한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답한다. -실제로 보고 그린 것이요. - 풍경을 그린 것이요. 손을 들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 조선후기요. - 금강전도요.	30분	멀티미디어 자료

		-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인왕제색도 설명]** 발문) 인왕제색도는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요? -인왕제색도는 1751년 정선이 76세에 그린 작품으로 가장 훌륭한 진경산수화입니다. 인곡정사 뒷산의 준수한 바위 봉우리가 비안개 걷히며 훤히 드러나는 모습을 그렸으며, 인왕산 바위를 포착하여 실경인상을 작품화한 그림입니다. 또한 인왕제색도는 절친한 친구의 임종을 앞둔 비애감을 잘 표현했습니다. **[인왕제색도의 표현 특징 설명]** 인왕제색도의 구조, 준법 등 표현특징을 설명한다. 발문) 인왕제색도의 특징을 말해 볼까요? - 표현 특징으로는 암벽의 적묵법, 부벽준법을 사용했으며 소나무에 능숙한 편필의 농묵이 사용되었습니다. 산등성이에 피마준과 듬성한 태점의 남종화법이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비에 젖은 암벽의 중량감을 살리기 위해 적묵법을 사용했으며 화면은 중묵으로 표현 했습니다. 흑백의 대조를 통해 실경의 특징을 강조, 과장하여 주제를 극대화 하였고, 화면에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작품의 의미와 중요성 설명]** 발문)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산천을 보고 그려 우리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수화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진경산수화를 대표하는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중국산천이 아닌 우리의 산천을 우리만의 화풍으로 그렸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인왕제색도요. 손을 들어 주제를 자유롭게 말한다. - 인왕산이요. - 친구의 비애감을 표현했어요. 손을 들어 주제를 자유롭게 말한다. - 표현 특징인 적묵법, 부벽준법, 피마준 - 흑백의 대조 등 배운 것을 되새기며 자유롭게 말한다. - 진경산수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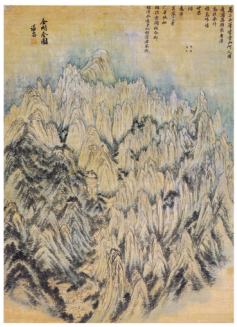
	비평 활동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신성을 담고 있는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상활동지 작성]** 감상활동지를 통해서 정선의 인왕제색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한다. 또한 진경산수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그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 및 생활상을 적어본다. - 배운 것을 토대로 감상활동지를 작성해 봅시다.	배운 것을 토대로 감상활동지를 작성한다.		감상 활동지 작성
정리 및 차시 예고	정리 및 평가	몇몇 학생들의 감상활동지를 발표하며 평가한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표현활동을 해볼꺼예요. 자신에게 가장 특별했던 여행지를 선택해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산수화를 그려볼꺼니까 풍경 사진 꼭 준비해 오세요.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마무리 인사한다.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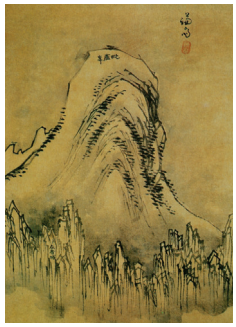
⑦ 감상활동지

<표 25> 한국회화 감상 - 1차시 감상 활동지

조선 □기(18c - 19c 중반) : 정선 진경산수화의 대표작 □□□□□

감상활동 날짜:	고등학교 학년 반 이름:





㉠.□□□□ ㉡.□□□□□ ㉢.□□□□

- 조선후기 미술 문화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진경산수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오.

- ㉡그림의 표현 특징을 설명하시오.

⑧ **참고 자료**(PPT 이미지)

조선 후기 (18c - 19c 중반)

“ 정선, 인왕제색도 ”

천원짜리 지폐 뒷면엔 무엇이 ?

학 습 목 표

1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통해 진경산수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국사교과와 연계하여 진경산수화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3 작품 감상을 통해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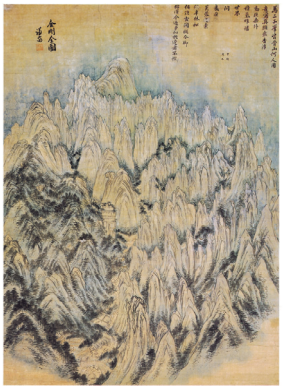
진경산수화란 ?

-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산천을 한국적 화풍으로 묘사한 것
- 작가의 의도가 많이 반영

진경산수화의 이론적 배경 ?

- 실학의 대두
- 여행이 활성화
- 지도 제작 붐

정선, “인왕제색도”



정선, "금강전도"

"금강전도" 세부

정선, "비로봉도"

정선, "박연폭"

정선, "목멱산"

활동지를
작성해 볼까요? ^_^

(2) Neo-DBAE이론에 근거한 서양회화 감상

가. 몬드리안의 추상미술 - 미술과 세계사의 통합

20세기에 발생한 추상회화는 사물의 외형을 똑같이 묘사하는 데서 벗어나 간략화하거나 상징화하여 사물의 본질을 추구한다. 추상미술은 실제로 관찰되는 사실적 형태를 거부하는 미술유형으로 사물의 상징적 표상으로서의 기호적 징표들을 예술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고나 감정을 형태의 출처나 주제를 파악할 수 없는 자유로운 주정적 표현을 통해 표출하는 등 여러 형태가 있다.[49] 이러한 추상미술의 시작은 상상력이나 내적 감정을 창조의 본질로 본 19세기 낭만주의에서부터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후 과학의 발달로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종래의 외형 묘사에서 벗어나 회화 자체의 예술적 탐구에 빠져 든다. 이때부터 추상미술이 싹텄으며 191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도된다. 이러한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네덜란드의 모더니즘을 이끌었던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이 있다.

네덜란드의 풍경은 그로 하여금 수직선과 수평선을 강조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수직・수평선에 의한 평면적 구조와, 풍경의 또 다른 주된 특성인 빠른 후진감 사이의 긴장감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는 점차 이러한 요소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 속에서 신비로운 의미를 찾아내게 되었다.[50]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신지학의 영향, 데스틸, 신조형주의 이론이 있다. 신지학은 1910~1920년대 전 유럽에서 유행한 추상미술의 근원적인 이론적 체계로서 등장하였고, 추상미술은 일종의 종교와 같은 정신성을 추구하게 된다.[51] 신지학 사상은 몬드리안의 사상, 개념,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몬드리안은 1917년 반 되스버그와 함께 네덜란드어로 양식(style)을 의미하는 '데 스틸(De stijl)'그룹을 결

49) 안연희, 『현대 미술 사전』, 미진사, 1999, P.397.
50) 노버트 린튼, 『20세기의 미술』, 예경, 1993, P.74.
51) 김현화, 『현대미술 골고다의 초대』,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P.326.

성하였다. 데 스틸 운동이 미술사에 기여한 점은 자연 속의 어떠한 대상과도 연관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추상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몬드리안은 “미술이란 자연계와 인간계를 체계적으로 소거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술이 될 수 있으면 수학적인 것이 되기를 바랬고 잘 구성된 세계의 청사진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52] 제 1차 세계대전의 혼란기를 겪으며 “자연이란 불쾌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지저분한 ‘자연의’ 미술을 버리고 ‘신조형주의(Neo-Plasticism)’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해 나갔다. 그의 목표는 실제의 자연계에는 결여되어 있는 정확하고 기계적인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었다.[53]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는 수평과 수직의 직선, 사각형의 평면, 여섯 가지 색상이라는 기본적 조형요소만을 이용하여 조화와 균형, 비례의 미를 추구한 최초의 완벽한 순수기하학적 추상이론으로서 데 스틸 뿐만 아니라 20세기 추상예술의 전반에 걸쳐 본질적인 영향을 주었다.[54]

몬드리안의 대표작인 컴포지션 시리즈는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의 색채를 사용하고 수직과 수평선만을 사용하여 격자무늬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제한된 색채로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렸으며 검은 선으로 직사각형을 형성하여 금욕적인 그림을 선보인다. 그의 그림은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건축이나 가구, 생활 소품, 의상, 광고 등에 응용되며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몬드리안의 작품이나 그의 추상미술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현실이다. 누구의 작품인지도 모른 채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기 일쑤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몬드리안의 추상미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감상 수업이 요구된다. 하지만 앞의 3장의 현행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몬드리안에 대한 설명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몬드리안에 대한 설명은 1Page 정도이며 한 장을 넘긴 교과서가 없다.

---

52) 캐롤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2000, P.260.
53) 캐롤 스트릭랜드, 전게서, P.260.
54) 서슬기,「몬드리안의 <컴포지션>시리즈 분석과 이를 응용한 실생활 사례 연구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2.

이에 따라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어 지고 있는 몬드리안에 대한 체계적인 감상 수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어 세계사 수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감상 수업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Neo-DBAE를 적용한 세계사 교과와의 통합적인 감상 수업지도방안을 통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총체적 접근 방법을 통해 폭 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본 지도안은 총 2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시별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나. 본시학습지도안

① 단원명

- 대단원 : 감상
- 소단원 : 기하학적 추상, 몬드리안

②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추상미술의 대표화가 몬드리안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감상하고 세계사 교과와 연계하여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기하학적 추상의 원류를 이루어낸 몬드리안의 작품과 그의 세계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응용되고 있는 다양한 예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추상미술을 표현해봄으로써 몬드리안의 추상미술세계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한다.

③ 단원의 목표

- 추상화의 뜻과 종류를 알 수 있다.
- 세계사를 통해 몬드리안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몬드리안 작품의 특징적 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몬드리안의 미술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추상미술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④ 수업 계획

본 단원은 감상지도를 중점으로 미술사와 미술작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제작까지 통합적으로 수업을 계획한다. 또한 미술과목 이외에 다른 교과 즉, 세계사 교과를 연계하여 미술사 외의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해하여 폭 넓은 사고를 하도록 한다. 나아가 추상미술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줄 아는 창의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감상을 토대로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봄으로써 보다 넓은 시각적 안목과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한다.

교수 · 학습 방법은 반응중심 학습법으로 하며, 비평문이나 감상 활동지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구체화 시키고 언어화 하도록 한다. 또한 표현 시간에는 조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학습한 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추상미술 세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표 26> 서양회화 감상 - 차시별 지도계획

<table>
<tr><td colspan="2">대영역</td><td>감상</td><td>중영역</td><td colspan="2">20세기 추상미술 감상</td><td>수업 제재</td><td>몬드리안</td></tr>
<tr><td colspan="2">단원명</td><td colspan="6">기하학적 추상, 몬드리안</td></tr>
<tr><td colspan="2">학습 목표
(성취기준)</td><td colspan="6">1) 추상화의 뜻과 종류를 알 수 있다.
2) 세계사를 통해 몬드리안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3) 몬드리안 작품의 특징적 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몬드리안의 미술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5)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추상미술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td></tr>
<tr><td colspan="2" rowspan="3">학습자료</td><td rowspan="2">재료
용구</td><td>교사</td><td colspan="4">파워포인트 및 멀티미디어 자료, 감상활동지, 참고자료</td></tr>
<tr><td>학생</td><td colspan="4">필기도구, 교과서</td></tr>
<tr><td>웹자료</td><td>자료1</td><td colspan="4">http://v.youku.com/v_show/id_XNTgxOTc1NDA=.html</td></tr>
<tr><td rowspan="3">학습 전개 과정</td><td>차시</td><td></td><td colspan="2">학습목표
(성취기준)</td><td>학습과정</td><td>관련영역과 통합요소</td><td>배당 시간</td></tr>
<tr><td>1/2 본시</td><td>감상</td><td colspan="2">• 추상화의 뜻과 종류를 알 수 있다.
• 세계사를 통해 몬드리안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몬드리안 작품의 특징적 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td><td>-몬드리안의 작품을 통한 추상미술의 이론적 배경 설명

-감상 활동 후 감상활동지 작성</td><td>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세계사</td><td>50’</td></tr>
<tr><td>2/2</td><td>표현</td><td colspan="2">• 몬드리안의 미술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추상미술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td><td>-자신만의 특별했던 경험이나 감정을 주제로 추상미술을 표현

-친구들과 함께 감상 후 토론</td><td>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미술표현</td><td>50’</td></tr>
</table>

⑤ 수업 지도시 유의사항

◉ 지도 방법

-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감상의 흥미를 높여준다.
- 학습 주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자극해 반응을 충분히 유도한다.
- 타 과목과의 통합적 접근으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함께 학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 작품에서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한다.
- 단순한 지식전달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 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 교실 전체 분위기를 점검하고 주의집중 시킨다.
- 감상활동을 돕는 멀티미디어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표와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미술과 세계사를 연계한 통합적인 수업이 되도록 감상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세계사의 참고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 미술 비평 활동 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을 하여 대답을 유도한다.
- 감상 자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교사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 감상 자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감상활동지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과 이론적 배경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여 미술사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⑥ 본시 학습지도안

<표 27> 서양회화 감상 - 1차시 본시학습지도안

<table>
<tr><td>단원명</td><td colspan="3">기하학적 추상, 몬드리안</td><td>차시</td><td>1/2</td></tr>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5">1) 추상화의 뜻과 종류를 알 수 있다.
2) 세계사를 통해 몬드리안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3) 몬드리안 작품의 특징적 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2">학습
준비물</td><td>교사</td><td colspan="4">파워포인트 및 멀티미디어 자료, 감상활동지, 참고자료</td></tr>
<tr><td>학생</td><td colspan="4">필기도구, 교과서</td></tr>
<tr><td rowspan="2">학습
절차</td><td rowspan="2">학습
과정</td><td colspan="2">학습 및 활동 내용</td><td rowspan="2">소요
시간</td><td rowspan="2">자료
및
유의
점</td></tr>
<tr><td>교사</td><td>학생</td></tr>
<tr><td>도입</td><td>인사
및
출결
확인

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
제시</td><td>교사와 학생 상호 인사 및 출석확인
- 안부 인사 및 출석

[동기유발]
몬드리안 작품을 응용한 가수의 무대의상을 보여 주며 학습 동기를 유발 한다.
발문) 여러분, 원더걸스가 입은 노바디 의상은 누구의 작품을 응용한 것일까요?

[20세기 추상화가 몬드리안 설명]
원더걸스가 입은 무대의상이 몬드리안의 작품을 응용한 것임을 설명해 주며 20세기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몬드리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학습목표 제시]
20세기의 기하학적 추상을 대표하는 몬드리안은 추상미술의 선구자입니</td><td>-인사

자유롭게
대답 한다.
-코디요.
-몬드리안이요.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td><td>10분</td><td>인사
및
출결
확인
·
주의
집중</td></tr>
</table>

		다. 그는 수평선과 수직선,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과 무채색인 검정, 흰색, 회색만으로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하는 신조형주의를 제창하였고 이후 데스틸 운동을 통해 건축이나 디자인 등에도 영향을 미친 화가입니다. 오늘은 기하학적 추상의 대표작가인 몬드리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학습목표를 큰소리로 읽게 한다. -추상화의 뜻과 종류를 알 수 있다. -세계사를 통해 몬드리안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몬드리안 작품의 특징적 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추상화의 뜻과 종류를 알 수 있다....		
전개	도판 감상 및 설명	**[추상화의 뜻과 종류 설명]** 발문) 추상화란 무엇인가요? - 추상미술은 실제로 관찰되는 사실적 형태를 거부하고 형태의 출처나 주제를 파악할 수 없는 자유로운 주정적 표현을 말합니다. 추상미술은 그 표현 형식에 따라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과 자유로운 유기적 추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추상의 대표작가로 몬드리안이 있고, 유기적 추상의 대표작가로는 칸딘스키가 있습니다. **[세계사와 연계하여 추상미술의 이론적 배경 설명]** 발문) 추상미술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 추상미술의 정신은 이미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형 묘사에 치중했던 고전주의를 부정하고 상상력이나 내적 감정을 창조의 본질로 본 낭만주의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습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답한다. -추상적으로 그린 것이요. 손을 들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 입체파에 의해서요.	30분	멀티미디어 자료

		다. - 과학의 발달로 인한 사진의 발명은 사물의 외형 묘사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그와 반대로 이제는 회화 자체의 예술적 본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 20세기 초의 표현주의와 야수주의는 주정적 추상을, 피카소와 브라크를 대표로 하는 입체주의는 현대의 기하학적 추상의 길을 열었습니다. - 오늘 배울 몬드리안은 기하학적 추상의 대표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문) 추상미술이 유행하던 20세기의 사회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 20세기 초는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아른하임의 지각심리학의 영향으로 내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한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정신적 공황과 문화적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과학기술은 더욱 발달되어 도시화 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는 미술에서 다양한 양식과 개념, 사조가 등장하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몬드리안에 대한 설명]** 몬드리안에 대한 설명과 작품을 감상한다. -몬드리안은 네덜란드의 모더니즘을 이끌어 나가며 순수한 기하학에 입각한 추상 미술을 추구했습니다. - 기하학적 추상의 선구자인 몬드리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몬드리안 작품의 이론적 배경]** 몬드리안 작품의 이론적 배경으로 신지학의 영향, 데스틸, 신조형주의가 있습니다.	손을 들어 주제를 자유롭게 말한다. -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손을 들어 주제를 자유롭게 말한다. - 나무요. - 직사각형이요. 배운 것을 되새기며 자유롭게 말한다.		

		발문) 데스틸은 무엇인가요? - 데스틸은 양식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조형을 지향하기 위해 결성된 그룹입니다. -신지학의 영향 설명 -신조형주의 설명 **[몬드리안 작품의 추상 과정 설명]**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을 보여주며 그의 작품에 나타난 추상의 과정을 설명한다. 발문) 몬드리안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의 추상미술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요? - 이 작품은 “붉은 나무”라는 작품으로 나무를 표현했습니다. “붉은 나무”, “회색 나무”, “꽃이 핀 사과나무”, “구성 No.10″ 작품은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으로 나무를 선과 면으로 단순화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 작품은 1920년대의 “빨강, 노랑, 파랑색의 구성”으로 선과 색, 수평과 수직으로 순수 추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로 뉴욕 생활의 즐거움을 율동적이고 리듬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몬드리안의 표현 특징 설명]** 몬드리안의 표현특징을 설명한다. 발문) 몬드리안의 표현 특징을 말해볼까요? - 표현 특징으로는 직선, 수평, 수직, 기하학성이 있지요. 색은 빨강, 노랑, 파랑과, 검정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균형 잡힌 공간 구성이 있습니다.	-양식이요. 배운 것을 되새기며 자유롭게 말한다. -나무요. -동굴이요. 배운 것을 되새기며 자유롭게 말한다. -직선이요. -단순해요.		

		[우리 삶에 응용된 몬드리안 작품] 우리 삶에 응용된 몬드리안 작품을 살펴보고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예술 세계를 느껴본다. 의상 : 1965년 이브 생 로랑의 <몬드리안 룩> 광고 : 삼성의 '하우젠' 광고 영화 : 2005년 이명세 감독의 영화 <형사>	작품을 감상한다.		
	비평 활동	**[감상활동지 작성]** 감상활동지를 통해서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특징과 배경을 다시 한 번 인식한다. 또한 추상미술이 나타났던 20세기의 시대적 상황 및 배경을 적어본다. -배운 것을 토대로 감상활동지를 작성해 봅시다.	배운 것을 토대로 감상활동지를 작성한다.		감상 활동지 작성
정리 및 차시 예고	정리 및 평가	몇몇 학생들의 감상활동지를 발표하며 평가한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특별했던 경험이나 감정을 주제로 추상미술을 표현해 볼꺼예요. 다음시간까지 자신만의 특별했던 추억을 한 두가지 정도 생각해 오세요.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마무리 인사한다.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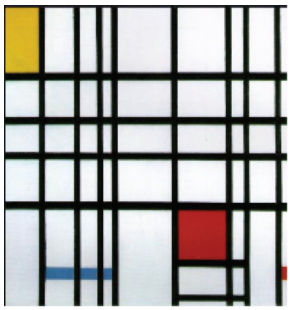
⑦ 감상활동지

<표 28> 서양회화 감상 - 1차시 감상 활동지

20세기 추상미술 : 기□□적 추상의 대표화가, 피에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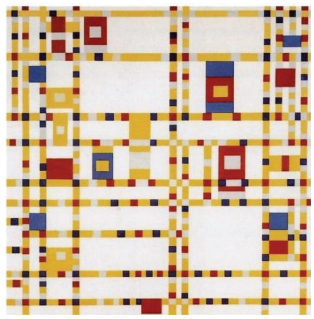
감상활동 날짜:	고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다음은 몬드리안의 작품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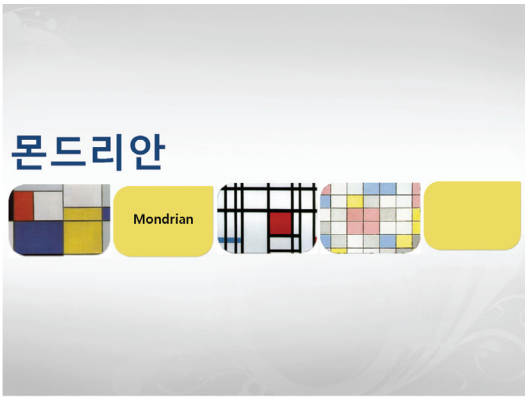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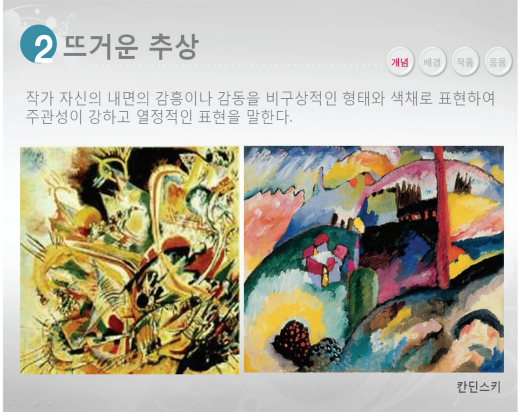
- ㉠의 제목은 <□□, □□, □□의 구성>이다.
- ㉡은 □□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의 제목은 <브로드웨이 □□□□> 이다.

- ㉢ 작품의 형과 색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을 적어보자.

- 타임머신을 타고 몬드리안이 살았던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가 보자.
  그 시대 상황은 어떠한가?

⑧ 참고 자료(PPT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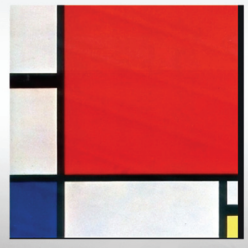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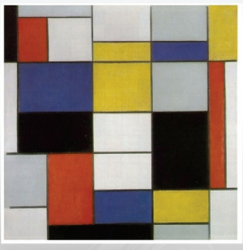


3 차가운 추상

개념 배경 작품 응용

선과 면이 이루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절제된 색채로 생각을 질서 있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차가운 느낌의 화면 구성을 말한다.





몬드리안

4 추상미술의 이론적 배경

개념 배경 작품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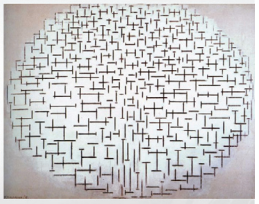
1 과학의 발달 : 사진발명

2 프로이트의 심리학 : 내면에 관심

3 두 번의 세계대전

Mondrian 작품 (몬드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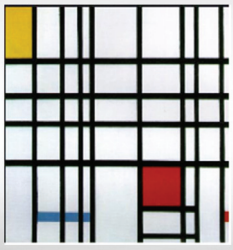
개념 배경 작품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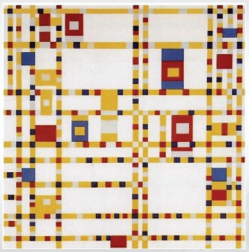


꽃핀 사과 나무 | 구성 10번

Mondrian 작품 (몬드리안)

개념 배경 작품 응용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Mondrian 실생활 응용

개념 배경 작품 응용

Mondrian | 가구

Mondrian (감상활동지)

감상활동지를 작성해 봅시다. ^^

Ⅴ. 결론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활용할 줄 아는 시각적 안목과 비판적 사고력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며 중요하다. 미술 교육은 미적 안목을 갖춘 미술소비자를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 미술교육의 한 방법으로 도입 될 수 있는 Neo-DBAE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전개하여 Neo-DBAE에 의한 감상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미술 감상 수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미술 감상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Neo-DBAE는 네 영역 즉 미술사, 미학, 미술비평, 미술 제작을 중심으로 각 영역의 중첩과 선택적 적용, 폭 넓은 미술경험의 유도, 타 학문과 연계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미술교육이다. Neo-DBAE는 비평적 사고활동을 중시하며, 시각적 문해력의 신장을 추구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 사회의 수용으로 미술 내용이 확장되었고, 네 영역 안에서 중첩과 선택, 축소와 생략,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언어학, 과학, 수학 등 관련 학문 영역과의 통합을 허용하였다. 이런 Neo-DBAE의 특성을 반영한 미술교육은 미술비평 활동을 통하여 시각적 정보를 이해하게 하며, 미학적 접근을 통하여 철학적인 판단아래 창작활동을 돕는다. 이는 시각적 문해력 신장에 효율적인 접근법이다. 또한 통합적 교육 방법을 통해 다문화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술에 대한 이해는 미술의 창작뿐만 아니라 감상에서 비롯된다. 미술 감상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평 능력을 길러 미술 작품을 포함한 시각 현상들의 의미를 읽어내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에 현장에서는 단순한 지식 나열수업이 아닌 사고력의 배양을 육성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분석을 통

해 현 미술 감상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Neo-DBAE에 기반한 감상교육 지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사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감상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그 시대의 배경을 심도 있게 감상하고, 나아가 전통회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상활동지를 통해 비평 능력을 향상 시키고 시각적 문해력을 신장 시키고자 한다. 국사교과와의 연계 수업은 Neo-DBAE에서 강조했던 통합적 접근을 적용시킨 것으로 총체적 이해와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둘째, 세계사교과와 연계하여 추상미술의 대표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세계를 감상하고 그가 살았던 20세기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 몬드리안의 작품은 광고, 의상, 영화, 가구 등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미술사적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세계사 수업과 연계한 통합적인 감상 수업은 미술사적 지식과 함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몬드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총체적 접근 방법은 미술문화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수업지도안을 통해서 표현활동에 치우친 수업이나 지식나열의 감상 수업 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폭 넓은 미술경험을 할 수 있으며 통합적인 지도 방법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Neo-DBAE에 기초한 수업 지도안을 적용해본 결과, 미술교과 외의 타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에 흥미를 느끼고 주의집중 하였다. 하지만 교사는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 타 교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 등 너무 많은 능력이 필요했다. 네 개의 학문 외에 타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o-DBAE에 기초한 감상교육 방법은 표현위주의 수업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미술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Neo-DBAE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각각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준비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술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토대로 후행 연구는 타 교과와의 다양한 통합이 연구되어 회화뿐만 아니라 공예, 조각, 건축 등 여러 분야의 미술이 연구되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현장 수업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미술교과 외에 타 교과와의 통합 수업은 폭 넓은 미술 경험을 유도하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학습지도방안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단행본 >

김성숙 외 (2003),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김현화 (2004), 『현대미술 골고다의 초대』,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노버트 린튼 (1993), 『20세기의 미술』, 예경.

노부자 (1999),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박휘락 (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아트.

아더 에프랜드 (1996), 『미술교육의 역사』, 예경.

안연희 (1999), 『현대 미술 사전』, 미진사.

안휘준 외 (2003),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 (2000),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월간미술 (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캐롤 스트릭랜드 (2000),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03),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한국미술교육학회 (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H.W.잰슨 & A.F. 잰슨 (2001), 『서양미술사』, 미진사.

< 국내문헌-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미술(제 2007-79호)』

———————— (2011), 『미술과 교육과정(제 2011-361호)』

김영길 외 (2010), 『고등학교 미술』, (주) 미진사.

노 용 외 (2010), 『고등학교 미술』, (주) 교학사.

안금희 외 (2010), 『고등학교 미술』, (주) 지학사.

이상원 외 (2010), 『고등학교 미술』, (주) 천재교육.

조익황 외 (2010), 『고등학교 미술』, (주) 지학사.

박남희 외 (2011), 『고등학교 미술감상』, 미진사.
심영옥 외 (2011), 『고등학교 미술감상』, (주) 교학사.
서인숙 외 (2011), 『고등학교 미술감상』, 경상북도교육청.

< 국내문헌-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

김황기 (2002), 「DBAE : 어제와 오늘 (Ⅰ)」, 『미술교육논총』 제15.
——— (2002), 「DBAE : 어제와 오늘 (Ⅱ)」, 『미술교육논총』 제15.
류재만 (2001), 「구성주의 미술교육의 이론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박종미 외 (2003), 「DBAE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적 효과」, 교육과학연구
전성수 (2003), 「포스트모던 미술교육 논의에 대한 비평」, 『사향미술교육논총』
——— (2004), 「미술 감상과 비평교육의 쟁점과 방향」, 『사향미술교육논총』
최미경 (2004), 「DBAE의 변화에 대한 고찰」, 『사향미술교육논총』 제12.
——— (2006), 「Neo-DBAE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고찰」, 『미술교육논총』

< 국내문헌-학위논문 >

박병률 (2005), 「조선시대 후기 회화 연구 :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의 진경산수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슬기 (2006), 「몬드리안의 <컴포지션>시리즈 분석과 이를 응용한 실생활 사례 연구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희 (2011), 「미술관 연계 방과후 미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 : 경기 농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희란 (2007), 「Neo-DBAE를 활용한 통합적인 전통미술교육에 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경 (2006), 「Neo-DBAE에 의한 미술교육과정 구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외국문헌 >

Barkan (1962), 「Transitions in art education」
Viktor Lowenfeld (1964),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Elliot W. Eisner (1997), 「Educating Artistic Educating」, VA:National Art Educating Association.

< 웹싸이트 >

http://v.youku.com/v_show/id_XNTgxOTc1NDA=.html
http://cafe.naver.com/sangsangmaru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78&

Abstract

Study on Art Appreciation Education Based on Neo-DBAE Theory -Focusing on Paintings in High School Art Textbooks-

Cho, Yejin
Majored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dvisor : Prof. Kim, Ji-kyun

Modern society is changing every day in this tim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The worldwide information web transcends time and space and can be accessed anywhere and anytime.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nurture critical thinking and visual judgment to rightly accept and discriminat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is age, art education needs an appreciation education to perceive, reminisce, understand and accept art to balance its creative activity.

This paper explores art education based on Neo-DBAE, an effective approach in developing visual literacy. DBAE, an acronym for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emphasizes the independence of art and its fundamental value. As the society, culture and philosophy of the times have shifted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and a question of the overall content of the DBAE was raised, Neo-DBAE - which complements the periodic features of contemporary society - emerged.

Neo-DBAE, focusing on the four areas of aesthetics (art history, art

criticism and artistic expression), emphasizes critical thinking, pursues superposition and selective application of these four area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and integration of a related discipline and induces a wide range of artistic experienc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 teaching plan that will create an effective Neo-DBAE theory-based art appreciation class so that today's art education might be established at the center of current art education.

Art appreciation is an activity design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rtwork and the visual culture environment, to understand their value and to evaluate them. It also induces the motivation of expressive activity and helps students understand artwork in a historical, periodical and cultural context. Among various art education programs based on Neo-DBAE theory, this paper selects the appreciation education of Korean and Western paintings. Through those paintings students will study the artistic styles, expression techniques, and its expressive features and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period and its relations with the cultural environment of our society. From this approach, this paper focuses on developing an understanding among people who are living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in this age. Appreciating paintings will help students develop the correct aesthetic value judgment and will be an excellent guide to responding to today's changing age. In this light this paper suggests a teaching plan of appreciating Korean and Western paintings based on current high school textbooks. Accordingly this paper designs a teaching plan for an art appreciation class for high school based on Neo-DBAE as following:

The introduction suggests the goal, contents and method of art appreciation education based on Neo-DBAE, objects of the research and

its limitations. Chapter 2 looks at the background and features of Neo-DBAE and its educational value. Chapter 3 looks at the meaning and issues of art appreciation education and trie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rt appreciation education. By analyzing Korean and Western paintings in the newly revised current high school textbooks, it suggests a foundation for designing art appreciation teaching plans based on Neo-DBAE theory. Chapter 4 looks into art appreciation education based on Neo-DBAE theory. A teaching plan appreciating Korean and Western paintings based on Neo-DBAE theory is proposed. It was design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nalysis of paintings in current high school textbooks.

In August, 2011, the art curriculum was revised again.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an effective art appreciation guide to suit the new curriculum in this changing flow of society is needed. According to this curriculum, the previous selective-oriented curriculum changes to a nationally common basic curriculum and selection-oriented curriculum. Therefore an effective appreciation education that reflects this new curriculum is needed. Because of this need, this paper suggests the needs of art appreciation education based on Neo-DBAE theory. By so doing it aims at suggesting a plan that will boost the interest in appreciation education of Korean and Western painting while activating continuous research on appreciation education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